

유교문화권에서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 정 훈†

한국생산성본부

본 연구는 유교적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2007년 봄 전국의 28개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 1,495명(평균 연령 18.6세)의 유효응답으로 이루어진 데이터가 수집되었다. 분석 결과 한국인에게 있어 도덕성은 질제 요인을 중심으로 공정 요인, 책임 요인, 청렴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Parker의 부모 양육행위 측정 도구(Parental Bonding Instrument)를 활용하여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이 분석되었다. 선형구조모형을 통해 부모의 양육행위의 영향을 분석하면, 어머니의 애정과 자율은 도덕성 형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어머니의 통제(보호의 하위척도)는 옴의 영향을 각기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리적 병리성은 도덕성 형성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부모의 행위가 간접적으로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통로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는 심리적 병리성을 강화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도덕성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아버지의 양육행위는 유교적 가치로 대변되는 사회적 규범을 지도하는 기능을 행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통제의 기능이 두드러지다. 한편 유교적 가치관에서는 장기지향성(신뢰성)과 집단주의 요인이 도덕성 형성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지향성 요인에는 하위요인으로서의 성취지향성이 개인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올곧은 성품 같은 도덕성 요소와 나란히 배열되어 도덕성 형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친다. 반면 집단주의 요인에는 부패에 대한 저항 같은 사회적 영역에서의 도덕성 요소가 하위요인으로서의 조화 요인과 함께 부수적인 요인으로서 배열되어 있다. 이는 조직 및 사회 수준에서의 자기정화역량을 저하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집단주의 문화요소의 배열은 도덕성 형성에 대하여 옴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도덕성 형성, 도덕발달, 부모의 양육행위, 유교적 가치관, 문화요소 배열

* 이 연구는 홍사단 투명사회운동본부(2007)에서 실시한 ‘한국 청소년의 투명성 형성요인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수집된 자료를 사후 분석한 것임.

† 교신저자: 이정훈, 한국생산성본부 연구원, (463-76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92 임광아파트 309-1602
Tel: 010-2708-0427, E-mail : justinlee@lycos.co.kr

한 사회가 윤리적이기 위해서는 구성원의 도덕성이 전제되므로 개인의 도덕성을 함양시키는 요인에 대하여 여러 분야의 학자들이 추론하여 왔다. 그러나 급속히 변화하는 우리 사회에서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이며 그 정도는 어떠한가에 대하여 추론의 수준을 넘어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도덕적으로 옳고 그름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도덕적 성품에 영향을 주는 삶의 환경과 경험이 무엇인가를 식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일반적으로 도덕적 성품에 있어서의 차이를 형성시키는 요인 가운데 환경의 범주에 속하는 요인으로서 부모의 자녀 양육행위가 우선적으로 지목된다(Gibson & Chandler, 1988). 본 연구는 실생활의 맥락에서 부모의 양육행위가 미치는 영향의 방향과 그 정도를 고찰한다. 두 번째로는 유교문화적 맥락에 대해 주목한다. 부패 그 자체는 모든 문화에서 발견되는 보편적인 것이지만, 부패의 현상과 증상은 문화에 따라 다르다. 이는 도덕성과 이의 형성요인이 문화에 따라 다르게 구성되고 구조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유교적 맥락에서의 구조화 요인을 식별하고자 한다.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도덕성을 어떻게 정의하고 측정하여야 하는가의 문제가 선결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도덕성 형성 요인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도덕성에 대한 정의와 측정에 대한 논의에서부터 시작한다.

인간의 마음과 행동은 한 방향으로 치우치는 경향성이 있다. 이러한 경향성은 인간이 자신이 속한 집단과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평가하는 바를 배우고 받아들이는 한편 스스로

의 주관적 의지를 실현하려는 성향으로 나타난다. 도덕성은 개인이 속한 사회의 문화규범에 따라 행동하도록 배우고 이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다. 올곧음(integrity)이란 동기와 신념 그리고 행동이 일관된 것이다(Buechler, 2006). 이렇게 사회규범이 인격의 일부가 되어 개인의 내적 도덕기준이 형성되고, 감정과 충동의 구조를 거쳐 이를 일상생활의 장에서 충실히 실천하려는 성향이 도덕성(moral integrity)이다.

이러한 도덕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측정되는가에 대하여는 수많은 논의가 있어 왔다. 도덕성 형성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는 1930년대 Piaget에 의해 시도된 인지발달론적 접근이 큰 흐름을 형성하여 왔다. 1950년대에 Kohlberg가 도덕적 사고구조와 그 발달단계 및 도덕 판단 수준을 다룬 이론을 구축하고, 이에 따른 개인의 도덕성을 면담을 통해 측정하였다. Rest (2008)는 인간의 도덕행동은 도덕적 민감성, 도덕 판단 수준, 동기적 차원 및 도덕적 성품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한다. 도덕성 연구의 틀로서 4-구성요소모형(four component model)이 대두되었다.

도덕성에 대한 또 다른 이론으로는 Gilligan (1982)의 배려의 윤리(ethic of care) 이론, Eisenberg(1995)의 친사회적 도덕 판단(prosocial moral reasoning) 이론, Turiel(1983)의 영역구분(domain distinction) 접근, Shweder, Mahapatra, & Miller(1987)의 도덕성에 관한 문화심리적 관점 등이 각기 독자적 연구 흐름을 형성하였다. 이들 연구모형이 Kohlberg의 이론과는 다르지만, 도덕 판단에 집중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닌다(Walker & Pitts, 1998).

본 연구는 도덕성은 철학이나 관념의 영역이 아니라 삶의 실제적 영역에서 규명되어야

한다는 관점을 지닌다. 인간은 부모에 의해 가족질서 안에서 출생하고 양육되어야 하는 생물학적 조건을 지니며, 가족질서 안에서 성숙한 다음 위계질서가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인간 사회에서 타인과 더불어 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운명을 지닌다(최진덕, 1997). 개인이 성장한 다음에 사회를 만드는 부분이 일정 부분 있다 하더라도 개인이 성장하기까지는 사회가 개인을 만든다. 따라서 개인이 동의하거나 복종해야만 하는 근본적인 권위가 개인보다 먼저 존재하며 이것이 문화이다.

한국 문화의 주된 특징으로서 유교 전통, 집단주의와 가족주의 그리고 부모의 자녀 양육행위가 언급되며, 도덕성을 구성하고 이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고찰된다.

동양사상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유교이다. 儒家의 이상은 大同社會 건설에 있다. 대동사회란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 조화를 이루어가는 和의 사회이다. 그러므로 유교문화권은 공동체 내에서의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인간관계에서 요구되는 관계질서 확립을 일차적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한 규범문화는 도덕을 강조함으로써 이루어진다. 禮는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한 원리로서 구성된 서로의 차이를 존중하는 것이며, 예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윤리적 이상으로서의 義가 지켜져야 한다.

김충렬(1985)에 따르면, 義의 개념은 인간의 용모와 행동거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쓰이다가, 사람의 용모와 행동거지의 가장 마땅한 것으로서의 당위규범을 의미하는 것으로 발전하였고, 행동거지와 당위규범이 맞아들었을 때를 평가하는 ‘善’ 개념이 되었으며, 나아가서는 당위규범에 어긋나는 행위를 바르게 하려는 규제의 뜻을 갖게 되었다고 한다. 義가 포함

된 용어 가운데에는 義理와 正義가 대표적이다. 의리는 인간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관계 유지를 위해서 인간이 지녀야 하는 덕목으로서 節義, 信義, 志操, 절개, 명분과 같이 개별 관계 속에서 요구되는 도덕규범(relationship based morality)이다. 반면 정의는 사회의 구조나 제도의 도덕적 정당성을 평가하는 데에 적용되는 개념이다. 그러나 의리와 정의는 충돌하여 갈등을 일으키기도 한다. 사적 의무와 보편적 의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의 행동기준에 대하여는 先公後私가 일반적으로 제시된다(이승환, 1998). 의리와 정의가 서로 상충될 때 어느 방향으로 치우치는가는 개인의 도덕성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동양의 전통문화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접근한 대표적 연구로서는 Chinese Culture Connection(1987)을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유교적 가치요인을 불교나 도교의 가치관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적 연구를 행하였다. 22개국의 대학생이 40개 항목에 대해 평가한 평균치를 국가별 가치평가로 간주하는 분석 방법을 통해서 네 가지 유교적 가치를 식별하였다. 이것은 통합(integration), 유교적 노동역동성(Confucian work dynamism), 仁(human-heartedness) 및 도덕적 규율(moral discipline) 등의 가치요인이다. 이들 요인은 도덕성과 이의 형성요인으로서 의미를 지닌다.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대표적 문화요인 가운데에는 집단주의와 그 한 형태로서의 가족주의성향이 언급된다. 집단주의 사회에서는 관계중심적 인간관이 지배적이다. 개인은 집단에 의존하고, 집단과 조화를 추구하며, 자신을 억제하고 다른 개인과 협동할 것이 권장된다(조금호, 1993). 이는 자연스럽게 의존하려는 태도를 조장하며 이는

다시 책임감이 결여되는 자세로 연결된다.

구성원간의 어울림이 강조되는 집단주의 문화에서 구성원들은 다른 사람이 기대하는 대로 반응하는 것이 강조된다. Yang(1981)이 주장하였듯이, 집단주의 문화의 구성원들은 내적 욕망과 개인적 도덕성보다는 외부의 기대에 부응하여 행동하려는 성향을 지닌다. 이로 인해 가족주의적 인간관계가 강조되고, 연고주의적 태도가 발전하게 된다.

배용광(1983)은 가족주의의 영향으로 형성된 특성으로 한국인의 의식구조에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태도보다는 비합리적 인정에 좌우되는 성향이 강하여 대인관계나 사리 판단에 있어 이성보다는 감성이 우세하고 공적인 요인보다는 사적인 요인이 지배할 때가 많다고 지적한다.

윤태림(1972)은 유교적 가족제도가 한국인의 심성에 미친 악영향으로 외부 권위에 의해 지배되고 제압되는 마음 자세를 지적하고 있다. 즉 도덕적으로 정당하고 규범에 부합되는 것이 권위에 의해 무시될 경우 잘못을 바로잡거나 저항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잠재되어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윤태림(1970)은 이러한 현상의 배경으로 Fromm(1962)이 언급한 가정 분위기를 지목한다. 즉 어린이들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하고, 의심이 많은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결핍감(feeling of scarcity)을 갖게 되고 이로 인해 받아들이기를 좋아하는 성향(receptive orientation)이 형성되는데, 그 결과 자기가 원하는 것은 외부로부터 주어진다든 전제를 지니게 된다고 한다. 이러한 전제를 받아들이면 사람은 주체성이 약화되고 권위주의적 성향을 지니게 된다. 생활주위에서 발견되는 부패와 불의에 대하여 방관하는 심리적 원인이 성장기에 부모가 행한 양육행위와 관련

된다는 해석이 가능해진다.

이를 문화현상으로 설명하면 Hofstede(1980)가 불확실성회피성향과 권력격차가 큰 문화에서는 규칙이 많은 반면 권력자에게 권한이 집중되어 규칙의 합리적 집행도 보장되지 못한다고 지적한 현상과 일치된다. 양승두(1989)는 한국인에게 법이란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 편의대로 아랫사람에게 강요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법의식 실태를 보고하였다. 한국 사회에서는 법이 있어도 법 집행자는 이를 자기편의적으로 재단하여 강한 사람에게는 관대하게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현상의 핵심 원인에 대하여 Hofstede는 구성원이 지니는 권력에의 의존 욕구로 설명한다. 자신의 인생이 상대방의 손에 달려 있다고 믿고 상대방에게 유리한 쪽으로 행동하려고 들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한편 동아시아에서는 의로움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건 사람을 존중하는 오랜 전통이 있는데, 여기에는 司馬遷이 저술한 史記가 미친 영향이 상당하다. 史記는 구성에 있어 동아시아의 신화시대부터 前漢 초기까지의 역사를 本紀, 表, 書, 世家로 나누어 기록한 후, 별도로 열전을 두어 중요한 인물에 대한 70편의 전기를 수록하였다. 열전은 殷나라와 周나라의 왕조교체기에 孤竹國 군주의 두 아들 伯夷와 叔齊에 대한 기록으로 시작된다. 이들은 周의 文王이 殷의 紂王을 暴으로서 치려는 것을 말리다가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불의의 땅에 안주할 수 없다 하여 수양산에 들어가 풀로 연명하다가 죽는다는 줄거리로 되어 있다(이인호, 2003). 이처럼 義가 현실 세계에서 외면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의에 저항하여 인간 세상을 등지는 인물에 대한 기록이 열전의 첫머리를 차지한다. 이어서 재상과 장

군, 자객과 협객 심지어는 가혹한 관료에 이르기까지 각 시대의 상징적 인간 200여명의 삶이 기록되어 서로 대조를 이룬다. 이러한 다양한 인물의 삶을 기록한 사마천의 의도는 현실 세계에서 성공여부보다는 주관적 가치로서의 의로움의 시각으로 역사를 해석하려는 의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동아시아의 전통으로 인해 권력자의 부당한 권력남용을 비판하는 행위를 義롭다고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권력에 저항하는 행위는 어느 사회에서든 용이하지 않다. 불의한 권력에 저항하는 행위에 동조하려는 욕구가 생겨난다 하더라도 이는 개인의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정도에 불과할 뿐 대부분의 경우에는 권력과 맞서는 것을 회피한다. 그리고 특정 문화에서는 권력과 맞서는 행위가 더욱 회피된다. 간혹 부정을 비판하고 권력에 저항하는 조직 내부의 목소리가 제기되면, 특정 문화 구성원의 대부분은 이를 외면하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우 내부고발자는 조직구성원으로부터 외면당하기 쉬운데, 이에 동조하는 것이 조직에 협조하지 않는 행위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김기범과 김시업(2006)이 행한 내부고발자에 대한 연구결과는 한국에서 내부고발자가 상사나 동료인 경우에는 선호되지만, 부하직원으로서 선호되지 않는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다. 내부고발이 정의로운 행위라 하더라도 부하직원으로서 복종하는 사람을 선호하는데, 이에 대하여 김기범과 김시업은 내부고발자의 문제제기로 인해 자신이 부하직원으로부터 뒷사람으로서 대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하려 하기 때문이라 해석한다.

변시민(1983)은 개인이 스스로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집단규칙을 벗어나는 경우가

많고 구성원들이 집단내부의 힘의 관계에 주목하여 강한 쪽으로 기울어지고, 논리나 규칙 혹은 정의 등을 무시하고 강한 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일상적인 현상임을 지적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의견의 상호조정이 논리가 아니라 집단 내 힘의 관계로 이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편 이정훈(2002)은 한국인 특유의 의존적 성향을 응석의 심리로 해석하고 있다. 그는 응석의 심리를 Fromm(1962)이 언급한 악용적 성향(exploitative orientation)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응석의 심리란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려는 심리적 미성숙의 상태에서 성급하고 자기중심적 태도로 주위의 사람들을 자신의 욕구충족 수단으로 삼으려는 생활 자세를 지칭한다. 여기서 성급한 태도란 당장 눈앞의 이익에만 관심이 있을 뿐 장기적 안목이 결여되고 그 결과 자기통제가 결여되었음을 시사한다.

Bandura(1982)는 유혹에 저항할 수 있는 자기통제를 도덕성을 구성하는 중요 요인으로 보았다. 자기통제가 결여되면 충동적으로 일탈 행위를 하기 때문이다. 하영희(2001)는 자기통제를 정서, 행동 및 인지에서의 통제로 세분화하여 도덕성과 연결시킨다. 하영희가 인지통제로 분류한 것이 문용린의 연구에서는 신중성으로 표현되고 있다. 문용린(1988)은 도덕적 상황에 직면하여 심사숙고하며 원리와 정의의 가치를 고려하는 성품에 대하여 언급한다. 자신의 이해관계에서 한 발 물러나 다른 시각을 고려하는 성찰 역량은 도덕성에 영향을 미친다.

심리적 태도로서 도덕성과 관련되어 추론되는 개념으로는 자아상 관련 변인이다. 자아상은 어떤 가치규범으로 삶의 의미와 목적을, 자기정체성과 인간관계를 정의하는가의 문제

이다. 이는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통해 표출된다. 사람의 삶은 내적 요구와 외부 압력을 조화시키는 가운데 이루어지며, 스스로에 대한 인식 역시 이러한 요소를 반영하게 된다. 자아상에 있어서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자기실현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내는 데에 반해, 유교문화권에서는 사회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타인 및 사회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이상적인 모습을 상징하는 경향이 있다(조공호, 1996). 자아상을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파악하는 경향은 사회적 요구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 태도를 포괄한다.

자아상에 관한 논의를 현대의 청소년을 중심으로 고찰한 연구 가운데에 소비자 조사 시각에서 이 세대의 특징을 도출한 제일기획(2006)의 연구가 있다. 관련된 소비자 조사 보고서에서는 13 ~ 18세 연령층의 특성을 “규칙이나 규범에 얽매는 것을 싫어하고, 타인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쓰며, 새로운 유행을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 습득을 좋아한다”고 묘사한다.

한편 Funk(2004, 2007)는 포스트모던 사회의 젊은 세대에게서 발견되는 성격을 묘사하기 위해 자아지향성(I-am-me orientation) 개념을 도입한다. 자아지향성이란 현실을 자신의 희망이나 환상으로 바꾸려는 경향을 지닌다. 그 결과 외적 현실과 내적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부풀려진 자아에 매달린다. 따라서 자신이 가진 본래의 힘을 키우지 못하여 내면이 허약해지게 된다. 인간 내면의 고유의 힘을 가지고 자신의 인간다움을 펼쳐 보이는 대신 자신의 중심을 헛것으로 채운다고 묘사된다.

자아상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태도로서 개인이 환경의 힘에 휘둘리

지 않고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심리적 바탕으로 도덕성 형성과의 관계에서 고찰된다. 자기효능감은 자신에 대하여 긍정적이면서 세상에 대하여 적극적 태도를 지님으로써 갖게 되는 감정이다. 자립해서 살아갈 충분한 힘과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적극적 마음자세를 지닌 사람이 굳이 부도덕한 방법에 의존하여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태도를 지닐 가능성은 적으므로 도덕성 형성과 어떠한 관계를 지닐 것으로 추론된다.

자아상 이외의 심리적 태도요인 가운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는 심리적 건강성 여부이다. 심리적 병리성(mental illness)이란 사랑의 결여, 존재 이유의 결핍, 정의의 결여와 같이 기본적 인간 욕구가 충족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증상이다(Fromm, 1992). Fromm(1955)에 따르면 개인이 심리적으로 병적인가 또는 건강한가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구조의 문제이다. 많은 사회구성원이 동일한 감정에 사로잡히면, 이는 사회가 원인을 제공할 것이다. 상당수의 사회구성원은 심리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회적 성격지향성(social character orientation)을 공유하게 되지만 여러 사람이 같은 결함을 지님으로써 사람들은 이를 결함으로 인식하지 못한다. 한 사회에서 상당수의 구성원이 심리적 병리성으로 인해 공통된 결함을 지니는 것을 사회적으로 정형화된 결함(socially patterned defects)이라 한다. Fromm은 이렇게 병리성이 정상상태로 간주되는 것을 일상성의 병리학(pathology of normalcy)이라 하였으며, 그 원인으로 문화를 지목하였다.

심리적 병리성에는 근시안적 이기주의(short-term egoism, 조급성), 충동성, 유보적 태도가 포함된다. 반면 심리적 건강성(mental health)은 장기적 안목(long term perspective)을 바탕으

로 이루어지는 자기통제(절제력)를 포함한다. 심리적 건강성 요인은 도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심리적 병리성 요인은 도덕성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론된다.

부모가 자녀를 양육함에 있어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양육행위라 한다. 이는 문화적 가치의 내면화를 매개하는 변수로서 문화의 세대 간 전달자 역할을 하며, 다른 한편으로는 자녀의 태도와 도덕성 형성에 있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인간은 성장 과정에서 경험하는 감정이 쌓여서 인격을 형성하게 된다. 감정과 느낌이란 인간의 본질이요 인간다움의 기본요소이다. 인격으로부터 의식이 형성되고, 자존심이 만들어지며, 도덕과 윤리관도 여기에 뿌리를 두게 된다(전경숙, 1993). 전통적으로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아버지의 지도적 역할과 어머니의 자애로운 사랑(父義 母慈)이 자녀 양육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간주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이동식, 1980).

부모의 양육행위(parental behavior)가 자녀의 정신적·심리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적 연구는 일찍이 Levy(1943)에 의해 논의되었다. 근래에 이르러 Rutter(1972)는 어머니의 과잉보호가 정신분열증과 정신신체질환의 발병 요인이 되며, 더 나아가 인성 발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Jenkins(1973)는 아동이 과도하게 억제된 인성구조를 지니는 경우에는 그 어머니가 지나친 보호와 억제를 통해서 과거 무엇인가를 거부한 것에 대하여 보상하려는 데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한다.

여러 인류학자(Triandis, 1995)와 심리학자(Gardiner, 1994)는 여러 문화에서 행해지는 자녀양육행위를 묘사하기 위해 수용-거부 및 독립-의존의 두 가지 척도를 언급하고 있다. 한

편 정신의학자(Rohner, 1994; Parker, 1983)는 자녀 양육행위를 범주화하기 위해 애정(care)과 보호(protection)의 두 가지 척도를 도입하였다. 이렇게 각기 다른 연구 분야에서 채택된 접근 방식은 동일한 현상을 다른 용어를 통해 다루어 온 것으로 보인다.

부모의 양육행위에 관한 연구는 공통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필요로 하는 것을 주지 않고,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주려는 데에서 건강하지 못한 인성이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정신의학자는 심리적 문제를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위에 따른 후유증이라 간주한다. 일탈행위와 개인의 부도덕성은 가족성원간의 유해한 상호작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결과이다(Muris, 2006). Saul(1977)은 이러한 현상을 ‘해주는 것과 소홀함의 남용(abuse of omission and commission)’이라 설명한다. 이러한 불건강한 상호작용은 아동으로 하여금 거부당한 것으로 느끼거나 자존감을 손상시키고 스스로에 대하여 부적절하게 느끼게 한다. 사람들은 부모가 그들을 본 것처럼 스스로를 보게 되는 경향이 있다.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느끼는 아동과 성인은 스스로에 대해서 사랑받기 어렵거나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로 느끼기 쉽다.

심리적 표상은 개인이 존재에 대하여 지니는 암묵적인 관념으로서 개인이 새로운 경험을 인지하고 추론하고 반응하는 방식의 기본틀을 의미한다. 부모의 양육행위는 자녀의 심리적 표상 형성에 영향을 미치며, 따라서 도덕성 형성과 관련된다고 추론된다(Ansbacher, 1992).

Adler(1964)에 따르면 인간은 선천적으로 사회적 관심을 지니며, 사회적 요구(social urge)에 의해서 동기가 유발된다. 그러나 사회적 관심

에 대해 개인차의 원인에 대하여 Adler는 열등감을 조장한 환경 차이를 지적하면서 응석받이와 무시의 열등감에 대해 설명한다. Adler는 응석의 생활양식이 생겨나는 원인이 부모의 과잉된 관심과 보호에만 있지 않고, 오히려 자녀 스스로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경우에 더 많이 발달하게 된다고 주장한다(김춘경, 1999). 그리고 응석의 생활양식은 실제로 응석받이보다는 응석을 부리고 싶은 아동에게서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언하였다. 따라서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의 응석과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의 응석은 그 동기가 다르고 따라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추론이 유도된다.

Adler는 무시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사랑하고 협력하는 것을 배우지 못해서 사랑이나 협력의 힘을 도외시하면서 인생을 해석하고 살아간다고 한다. 부모의 수용적인 양육태도는 자녀들의 협동심과 사회성을 보다 발달시키고 독립적이며 자발성을 갖도록 하나, 억압적인 부모의 양육태도는 자녀들에게 적개심을 일으키고 비협동적이며 사회성에서 결함을 초래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도덕적 성품의 발달을 억제하게 된다는 관점이다.

도덕성과 도덕성 형성에 관한 여러 선행 연구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주제에 대해서 추론을 넘어 실증적으로 분석되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 연구는 다음의 연구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1. 한국인에게 있어 도덕성은 어떠한 요인으로 구성되는가?
2. 부모의 양육행위가 도덕성과 심리적 태도 및 유교적 가치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가?

3. 아버지와 어머니의 양육행위가 자녀의 심리적 태도와 유교적 가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데 있어 어떠한 차이를 지니는가?

4. 심리적 태도 요인 가운데 도덕성 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5. 유교적 가치 요인 가운데 도덕성 형성에 긍정적 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이러한 문제에 대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의미를 지닌다. 우선 부모의 양육행위로서 바람직한 방식을 제시할 수 있다. 특히 전통적 자녀양육방식인 父義 母慈의 원리가 오늘날에도 유효하고, 도덕성 함양의 차원에서 바람직한 형태인가를 판단할 수 있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가 조사 대상으로 정한 청소년기는 정서적으로는 불안정하고 정신적으로는 미성숙하나, 인격의 바탕은 이미 갖추어진 시기이다(김경일, 1991). 성년기에 어떤 가치성을 지니는가 하는 것은 청소년기에 짜여진 바탕 위에 추가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도덕적 성품의 바탕이 되는 청소년의 가치와 태도의 배열선(spectrum)을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의미를 지닌다.

셋째, 도덕성 형성요인에 대한 제시는 환경의 힘에 원인이 있는 스스로의 도덕수준에 대한 성찰과 스스로의 마음작동에 대한 자각의 계기를 제공한다. 이러한 마음가짐의 변화는 개인의 도덕성 고양으로 연결된다.

넷째, 사회 및 집단 수준에서는 문화설계의 방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요소를 새롭게 배열함으로써 구성원이 지니는 권위에 대한 태도 변화와 함께 공동체에서 제기된 문

제를 스스로 해결하려는 문화 형성의 촉진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Bellah, Madson, Sullivan, & Swidler, 1985).

방 법

조사과정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도덕성에 관하여 앞에서 언급된 다양한 견해와 추론을 설문지 형태로 변환한 후 이에 대한 응답자의 반응을 통계 분석함으로써 데이터에 내재하는 관계의 내용을 발견해 가는(heuristic) 방식으로 접근하였다. 도덕성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문화적 요인 이외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연령과 학력을 통제하는 전략을 채택하였다. 조사대상자는 고등학생으로 한정하였다.

조사대상학교는 다양한 집단을 반영하도록 일반계, 실업계, 외국어계, 과학계, 예술계에 속하는 전국의 28개 고등학교를 선정하였다. 학년별로는 설문문항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주관의 형성되었으리라 기대되는 고학년이 선호되었다. 설문조사는 2007년 5월 18일부터 7월 25일 사이에 윤리과목 담당 교사의 감독 아래 학급별로 실시되었다.

조사참여자

유효응답자는 1,495명(남자 668명, 여자 821명, 미확인 6명)이다. 응답자의 평균 나이는 18.6($SD = 0.6$)세이다. 전체응답자의 63.4%

3학년이고, 2학년은 전체의 31.4%, 1학년은 5.2%를 점한다.

무응답

통계분석은 무응답을 전제로 이루어졌으며, 동일한 응답자의 응답이라도 분석에의 포함여부는 척도별로 판단되었다. 무응답은 목록별 제거(listwise deletion) 방식으로 처리하였다.

측정도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도덕성, 심리적 태도 및 유교적 가치의 전체적 배열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이 행해졌다. 추출방식으로는 주요인 분석방법(principal component method)이 적용되고, 회전방식은 최우도(varimax) 방식이 적용되었다. 통계분석 도구는 SPSS 11.0 을 활용하였다.

도덕성 척도

본 연구는 도덕성을 측정함에 있어, 도덕적 판단의 인지 영역에 머물지 않고 도덕적 정서와 도덕적 행동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측정문항을 설계하였다.

질적 요인은 이정훈(2002)의 연구에서 응석의 심리를 측정하기 위한 문항이 사용되었다.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싶지 않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그리고 미국 워싱턴 대학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n.d.)이 반항성향(rebellious)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문항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지시하면 그를 꿀려주기 위해 그와는 반대되는 일을 한다’가 활용되었다.

공정 요인과 책임 요인의 측정문항은 최재석(1980)의 주장을 근거로 연구자가 한국 고등

학생이 지니는 현실적 관심사를 다루는 방향에서 설계하였다.

공정 요인에서는 의리와 정의의 갈등 상황에서 응답자가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자가 설계하였다. ‘친한 친구가 부탁하는 것이라면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는다’와 ‘친구들 사이에 의견충돌이 있을 때 옳지 못한 주장이라도 가까운 친구 편을 든다’ 등의 문항을 통해 접근하였다.

책임 요인에서는 일상생활에서 마주치는 크고 작은 어려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지니는가를 파악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피하려고 핏병을 부린다’와 ‘실수나 실패에 대하여는 핑계를 댈다’ 등의 문항이 포함되었다. 문항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매사 뛰어난 친구와 비교한다’는 성취한 것에 대하여 합리적 기준에 의해 판단하고 수용하는 자세를 반영하였다.

청렴 요인은 뇌물활용의사와 선거 때 향응을 제공받을 의사를 중심으로 연구자가 문항을 설계하였다. 문항 ‘선거 때 후보자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선물을 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쟁길 수 있는 기회이다’와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조금 비굴해져야 편히 살 수 있다는 점이다’ 등은 앞으로 부패할 마음가짐 상태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이다.

응답자는 이들 진술문에 대하여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응답이 ‘전혀 아니다’에 대해서는 5의 값을 할당하고, ‘매우 그렇다’에 대해서는 1의 값을 할당하였다.

요인분석 결과는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도덕성은 절제 요인, 공정 요인, 책임 요인, 청렴 요인 등의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구성 요인은 정서·판단·행

동의 측면이 반영되는 兩極 척도(bipolar scale)로 파악되었다. 4개 요인의 측정은 20개 설문항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표의 열 내에서 굵은 활자로 표시된 수치는 해당 문항이 공통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표의 하단부에 나타난 Eta Squared 통계량은 4개의 구성 요인에 의해서 설명되는 변량의 비중이다. 4개의 구성 요인 가운데 절제 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비중이 13.6%로 가장 커서 요인의 핵을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 다음으로는 공정 요인이 12.4%의 설명력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책임 요인은 10.1%의 설명력을, 그리고 청렴요인은 9.6%의 설명력을 각기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4개의 구성 요인에 의하여 설명되는 변량은 전체의 4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덕성 척도 구성 요인의 신뢰도 계수(Cronbach coefficient)는 0.73 ~ 0.60의 범위에 속한다. 이러한 타당도의 취약성은 본 연구를 통해 발견된 내용이 일반화에 있어 제한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따르게 한다.

자녀 양육행위 척도

자녀 양육행위에 대한 측정은 Parker(1983)가 개발한 도구(Parental Bonding Instrument)에 의존하였다. 이 도구는 16세 이상의 응답자가 출생 후 16년 동안 그들의 성장과정에서 자신들에 대한 부모의 양육방식을 회고하여 평가토록 설계되었다. 응답자는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해서 구분하여 평가하도록 요구받는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 척도는 25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이 가운데 12개 문항은 애정(care)에 관계되고 다른 13개 문항은 보호(protection)를 다룬다. 여기서 보호는 과잉보호(overprotection)의 의미를 지닌다. 이 도구는 응

표 1. 도덕성 요인구조

설문문항	요인 1	요인 2	요인 3	요인 4
줄서서 기다리는 것을 못 배킨다	0.592	0.131	0.116	0.011
비록 내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사과하고 싶지 않다	0.665	0.082	0.037	0.052
내가 책임져야 할 일을 모른 척하거나 남에게 미룬다	0.460	0.150	0.372	0.080
대화할 때 상대방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나의 생각을 말한다	0.567	0.030	0.284	0.006
내가 하려는 것을 방해하는 규칙은 무시한다	0.617	0.102	0.018	0.230
누군가 나에게 무엇인가를 하라고 지시하면 그를 골려주기 위해 그와는 반대되는 일을 한다	0.659	0.113	0.044	0.154
나에게 유리하다면 옳고 그른가를 따지지 않는다	0.478	0.182	-0.024	0.413
가까운 사람의 부정이나 잘못은 눈감아 주어도 된다고 생각한다	0.001	0.607	0.061	0.335
친한 친구가 부탁하는 것이라면 옳고 그르고를 따지지 않고 한다	0.074	0.703	0.039	0.105
자기가 속한 집단의 부정과 부패를 고발하는 사람은 배신자라고 생각한다	0.085	0.587	0.058	0.311
친구들 사이에 의견 충돌이 있을 때 옳지 못한 주장일지라도 가까운 친구 편을 든다	0.098	0.655	0.119	-0.075
학급 회장이나 반장 선거 때 능력 있는 사람보다는 친한 사람을 뽑겠다	0.181	0.632	0.043	-0.024
커닝하는 친구나 동료를 괴롭히는 친구를 선생님에게 알리는 것은 고자질이다	0.135	0.466	0.029	0.129
스스로에 대해 생각할 때에는 매사에 뛰어난 친구와 비교한다	-0.078	-0.085	0.548	0.085
자신의 어려움과 잘못된 일에 대해 다른 사람을 탓 한다	0.235	0.096	0.679	0.085
때로는 해야 할 일을 피하려고 핑계를 부린다	0.221	0.152	0.594	0.069
실수나 실패에 대하여는 핑계를 댈다	0.093	0.143	0.766	0.034
어려운 일에 부딪혔을 때 뇌물을 써서라도 해결 하겠다	0.367	0.129	0.046	0.612
선거 때 후보자가 제공하는 식사 또는 선물을 받는 것은 보통 사람이 챙길 수 있는 기회이다	0.135	0.138	0.061	0.724
보통 사람에게 필요한 지혜는 조금 비굴해 져야 편히 살 수 있다는 점이다	0.020	0.123	0.214	0.701
고유치	2.714	2.470	2.016	1.911
설명변량(%)	13.57	12.35	10.07	9.55
Cronbach α	0.735	0.703	0.604	.630

주. 열 내에서 같은 요인으로 묶여지는 변수는 요인부하량이 굵은 글씨로 표기되었다

요인 1: 절제 요인, 요인 2: 공정 요인, 요인 3: 책임 요인, 요인 4: 청렴 요인

표 2. 어머니 양육행위 척도의 요인구조

구 분	M (SD)	애 정	자 율	통 계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한다	2.20 (0.73)	0.716		
내가 원하는 만큼 돕지 않는다 *	2.05 (0.79)	0.502		
나에게 쌀쌀맞게 대한다 *	2.47 (0.71)	0.634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한다	2.14 (0.79)	0.679		
나에게 다정다감하다	2.26 (0.71)	0.738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즐겨한다	2.12 (0.81)	0.752		
나를 보고 자주 미소 짓는다	2.03 (0.83)	0.749	-	-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듯 하다*	1.68 (0.89)	0.361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게 한다	2.49 (0.80)	0.557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준다	1.75 (0.80)	0.598		
나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	2.26 (0.80)	0.719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	2.12 (0.83)	0.589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준다 *	0.85 (0.77)		0.701	0.054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게 도와준다 *	0.90 (0.77)		0.750	0.151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0.66 (0.76)		0.163	0.521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섭하려 한다	1.26 (0.84)		0.469	0.551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한다	1.08 (0.84)		0.509	0.475
나를 어린애 취급한다	1.21 (0.90)		0.199	0.631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게 한다 *	0.98 (0.78)		0.703	0.208
어머니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1.13 (0.83)		-0.166	0.634
어머니는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긴다	0.93 (0.87)		0.168	0.676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준다 *	1.08 (0.81)		0.782	0.106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에 나가게 한다 *	1.30 (0.88)		0.620	0.071
나를 과잉보호 한다	0.86 (0.83)		0.173	0.684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한다 *	0.97 (0.81)		0.472	0.161
고유치	-	4.053	3.399	2.637
설명변량(%)	-	33.7	26.1	20.3
Cronbach α	-	0.895	0.803	0.718

주. * 표시된 변수는 역점수(reversed coding) 문항

주. 열 내에서 같은 요인으로 묶여지는 변수는 요인부하량이 굵은 글씨로 표기되었다

표 3. 아버지 양육행위 척도의 요인구조

구 분	M (SD)	에 정	자 율	통 계	허 용
나에게 따뜻하고 다정하게 말한다	1.98 (0.80)	0.738			
내가 원하는 만큼 돕지 않는다 *	1.94 (0.84)	0.524			
나에게 쌀쌀맞게 대한다 *	2.24 (0.81)	0.608			
나의 문제와 걱정을 이해하려 한다	1.87 (0.83)	0.621			
나에게 다정다감하다	1.98 (0.83)	0.744			
나와 함께 대화하기를 즐겨한다	1.66 (0.90)	0.792			
나를 보고 자주 미소 짓는다	1.66 (0.92)	0.785	-	-	-
내가 필요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 는 듯하다*	1.58 (0.93)	0.481			
나는 원치 않는 자식이란 느낌이 들게 한다	2.43 (0.84)	0.484			
내가 언짢을 때 기분을 풀어준다	1.48 (0.88)	0.745			
나와 별로 이야기하지 않는다 *	1.71 (0.91)	0.766			
나를 칭찬하지 않는다 *	1.96 (0.87)	0.612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도록 해준다 *	0.89 (0.78)		0.672	0.157	0.358
나의 일은 내가 결정하게 도와준다 *	0.92 (0.77)		0.936	0.132	0.152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0.92 (0.77)		0.936	0.132	0.152
내가 하는 것은 무엇이든 간섭하려 한다	1.03 (0.88)		0.215	0.601	0.381
나의 개인 생활을 침범한다	0.87 (0.84)		0.246	0.577	0.372
나를 어린이 취급한다	1.05 (0.93)		0.109	0.653	0.133
내가 스스로 일을 결정하게 한다 *	0.96 (0.76)		0.665	0.221	0.309
아버지에게 의존하게 만든다	1.08 (0.83)		0.207	0.600	-0.226
아버지는 자신이 내 옆에 없으면 내가 내 몸 하나 돌보지 못한다고 여긴다	0.87 (0.82)		0.109	0.712	0.007
내가 원하는 만큼 자유를 준다 *	1.11 (0.81)		0.410	0.182	0.659
내가 원하면 되도록 밖에 나가게 한다 *	1.34 (0.89)		0.167	0.068	0.757
나를 과잉보호 한다	0.84 (0.82)		-0.023	0.622	0.211
내가 좋아하는 대로 옷을 입게 한다 *	1.03 (0.84)		0.193	0.099	0.630
고유치	-	6.116	3.054	2.531	2.071
설명변량(%)	-	50.9	23.5	19.5	15.9
Cronbach α	-	0.910	0.881	0.741	0.681

주. * 표시된 변수는 역점수(reversed coding) 문항

주. 열 내에서 같은 요인으로 묶여지는 변수는 요인부하량이 굵은 글씨로 표기되었다

답자가 스스로 어떻게 양육되었는가에 대한 인식을 측정한다. 본 조사에서는 송지영 (1992)에 의해 한국어로 번역된 설문을 사용하였다.

여러 영역의 학자들이 애정과 보호가 자녀의 성장에 있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하여 동의하지만, 보호에 대한 이해에 있어서는 차이가 발견된다. 자녀 양육행위 척도는 부모의 양육행위를 2요인 구조를 바탕으로 확립된 애정과 보호의 두 척도로 측정하는 도구이다. 그러나 보호 척도에 대하여는 다른 주장이 제기되었다. 즉 보호 척도는 단일 척도가 아니라 2 ~ 3개의 하위 척도로 나뉘어져야 한다는 주장이다(ESEMED/MHEDEA 2000 investigators, 2005).

본 연구에서도 설문응답을 요인분석한 결과 애정 척도는 단일한 요인으로 묶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 애정의 경우 요인부하값은 0.75 ~ 0.36의 범주에 있으며, 아버지 애정의 요인부하값은 0.79 ~ 0.48의 범주에 있다. 애정과 보호 척도 모두를 단일 척도로 간주할 경우 신뢰도 계수는 0.82 ~ 0.91의 범주에 위치한다. 어머니와 아버지의 양육행위 척도에 대한 요인분석 결과는 표 2와 표 3에 각기 나타나 있다.

한편 보호 척도의 타당성 검사를 위해 관련 13개 문항을 요인분석하면, 어머니 표본에서는 두 개의 하위 요인(자율과 통제)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율 하위 척도가 자녀의 독립성을 고무하는 성격을 지니는 반면에 통제 하위 척도는 심리적 독립성을 부정하는 성격을 지닌다. 한편 아버지 표본에서는 요인구조가 세 개의 하위 요인(자율, 통제 및 허용)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 허용을 구성하는 항목은 어머니의 경우 자율에 속하는 항목이다. 아버지 허용은 외부출입

과 옷차림에서 스스로 원하는 대로 행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허용해 주는 존재라는 점이 어머니와 다르다.

자녀가 부모의 통제에 대하여 인식하는 차이는 문항 ‘내가 어른이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가 어머니의 경우에는 통제에 속하지만, 아버지의 경우에는 자율에 속한다는 점에서 통제에 대한 성격상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다. 즉 아버지의 통제는 자녀로 하여금 성장을 저해한다고 받아들여지지 않지만, 어머니의 통제는 자녀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받아들여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심리적 태도 척도

심리적 태도에 있어서의 개인차는 도덕성 측정과 같은 방식으로 접근되었다.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되는 심리적 태도 관련 변인으로는 자아상, 심리적 건강성 및 심리적 병리성 요인이 포함된다.

자아상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의 두 가지가 포함된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 (1979)가 개발한 도구를 활용하였다. 그리고 자기효능감은 자신감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마음가짐을 중심으로 연구자가 설계하였다.

심리적 건강성에는 장기적 안목과 신중성이 포함된다. 장기적 안목은 스스로 욕구를 통제하고 긴 안목으로 현실의 문제를 처리하는 태도이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나는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보다 먼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편이다’와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등의 문항을 설계하였다. 신중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문항 ‘창피한 일을 겪지 않게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등이 설계되었다.

심리적 병리성에는 근시안적 이기주의, 충

동성 및 유보적 태도가 포함된다. 근시안적 이기주의는 즉각적인 욕구 충족을 원하는 성향으로 조급성을 의미하며, 장기적 안목과 대비되는 내용이다. 근시안적 이기주의를 측정하기 위해 연구자는 ‘갖고 싶은 모든 것을 지금 당장 갖고 싶다’와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 등의 문항을 설계하였다.

충동성(impulsiveness) 측정은 미국 워싱턴 대학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이 개발한 문항인 ‘나는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도 한다’ 등을 활용하였다.

유보적 태도는 번시민(1983)의 주장을 근거로 한다. 유보적 태도는 현실 세계가 부패 없는 사회가 되기는 어렵다고 인식하며, 이로 인해 부패 없는 사회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 나가기 위해 무엇인가를 실천하고 기여하려는 태도가 결여된 마음자세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 사회를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로 만드는 데에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와 같은 문항이 설계되었다.

응답자들은 진술문에 대해서 동의하는 정도를 Likert 5점 척도로 평가하여 응답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응답이 ‘전혀 아니다’에 대해서는 1의 값을 할당하고, ‘매우 그렇다’에 대해서는 5의 값을 할당하였다.

유교적 가치 척도

도덕성 형성을 유교적 맥락에서 고찰하는 본 연구는 유교적 가치가 어떻게 조직화되었는가를 다룬 선행연구에 의존하였다. Chinese Culture Connection(1987)이 개발하고 차재호와 장영철(1992)에 의해 번역된 도구를 사용하였다.

Chinese Culture Connection은 22개국 대학생

을 대상으로 가치관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도구는 40개의 동양적 가치관에 대하여 Likert 9점 척도로 평가하도록 설계되었다. 그 응답이 ‘전혀 아니다’에 대해서는 1의 값을 할당하고, ‘매우 그렇다’에 대해서는 9의 값을 할당하였다.

이를 통해 네 가지 유교적 가치 요인이 식별되었다. 통합 요인은 포용, 인화, 유대, 경쟁 없음, 신뢰성, 자족, 보수적 태도, 친구, 효, 애국심, 여자의 정절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노동역동성 요인은 서열준수, 검소함, 끈기, 창피한 줄 아는 것, 인사치레, 안정성 있는 성격, 체면, 전통 존중 등을 포함한다. 仁 요인은 친절, 인내, 예의범절, 정의로움, 애국심이 포함된다. 그리고 도덕적 규율 요인에는 중용, 초연하고 깨끗한 몸가짐, 무욕, 신중성이 포함된다.

차재호와 장영철은 한국 대학생 표본으로 구성된 데이터를 기초로 한국 문화에 대한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성취가치, 전통가치, 인화가치, 성실가치, 염치가치, 격식가치, 인격수양가치, 청빈가치, 정조가치, 정의가치, 무경쟁가치, 친애가치 등 13개의 가치요인이 도출되었다.

집단주의는 Chinese Culture Connection의 연구에서는 통합 요인으로 표출되고, 차재호와 장영철의 연구에서는 인화가치로 파악되었다. 한편 도덕성은 Chinese Culture Connection의 연구에서는 도덕적 규율로 표출된 반면 차재호와 장영철의 연구에서는 무경쟁가치 요인과 정의 요인으로 나뉘어 파악되었다. Bond (1991)가 장기지향성으로 개념화한 가치 요인은 Chinese Culture Connection의 연구에서는 노동역동성으로 표현되고, 차재호와 장영철의 연구에서는 성취가치로 파악되었다.

표 4. 심리적 태도의 요인구조

요인명	요인 부하량	설문문항
자아 존중감	0.724	나는 다른 사람만큼 가치 있는 사람이다
	0.753	나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졌다
	0.686	나는 스스로가 낙오자처럼 느껴진다 *
	0.591	나는 다른 어떤 사람들만큼 일을 잘 처리해 낼 수 있다
	0.701	나는 자랑거리가 별로 없다 *
	0.722	나는 스스로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본다
	0.693	전반적으로 나는 스스로에 대해 만족하다
	0.666	나는 가끔 스스로가 쓸모 없다고 느낀다 *
자기 효능감	0.558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0.592	어떤 문제가 주어지더라도 해낼 수 있다고 느낀다
	0.529	필요하다면 힘든 것을 견뎌낼 수 있다
	0.598	아무리 애매한 상황이라 하더라도 적절한 해결방식을 찾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다
	0.595	다소 위험이 따르는 것이라 하더라도 옳은 일이라면 해치운다
	0.598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것에 도전하는 것이 아주 신난다
	0.686	하고자 했던 일은 되든 안되든 끝을 봐야 속이 시원하다
	0.515	사람들이 나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점을 안다고 하더라도 나의 의견을 말한다
	0.334	사람들이 자기 다른 생각을 하지만 이를 하나로 수렴하는 방안은 있기 마련이다
0.344	언젠가 겪었던 어려움은 세상사에 대한 이해력을 높이고 나의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	
장기적 안목	0.592	내가 꿈꾸는 장래의 모습을 상상하며 거기에 맞추어 행동한다
	0.690	나는 당장 눈앞에서 일어나는 일보다는 먼 장래의 일을 생각하는 편이다
	0.417	눈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해하지 않는다
	0.330	삶의 오르막에 들뜨지 않고 내리막에서 비판하지 않는 차분한 마음가짐으로 살고자 한다
신중성	0.600	챙피한 일을 겪지 않게 몸가짐을 바르게 한다
	0.512	나는 신중하다
	0.776	손해보는 일이 있더라도 체면은 지키려 한다
근시안적 이기주의	0.439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중요한 것은 자신이나 가족의 이익이라고 생각한다
	0.669	가게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더 받으면 그냥 갖는다
	0.450	잘못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10만원을 준다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
	0.536	갖고 싶은 모든 것을 당장 갖고 싶다
유보적 태도	0.763	부패한 한국 사회에서 깨끗하게 살아가기는 어렵다
	0.739	우리 사회를 부패 없는 깨끗한 사회로 만드는 데에 우리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다
충동성	0.624	나는 지금 즐거우면 나중에 손해되는 일이라고 한다
	0.622	나는 아무리 신나는 일이 있어도 위험이 따른다면 하지 않는다 *
	0.522	나는 일을 충동적으로 한다
	0.562	결과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무슨 일인가를 자주 벌린다

주. * 표시된 변수는 역점수(reversed coding) 문항

요인구조분석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심리적 태도와 가치는 각 요소의 존재 여부와 그 강도에 의해서 파악될 수 있다. 한편 이들 요소의 배열과 상호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요구된다. 요인구조는 배열과 상호관계를 파악함으로써 한 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특징을 분석 가능하게 한다. 이는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심리적 태도의 신뢰도와 타당도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추론되는 심리적 태도를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하였다. 우선 심리적 태도 관련 변인을 요인분석하면 표 4에서와 같이 7개의 하위요인이 식별되었다.

자아상에는 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이 포함된다. 자아존중감은 스스로를 가치 있다고 느끼는 태도이다. 이의 측정은 8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문항의 요인부하값은 0.75 ~ 0.59의 범주에 있다. 자기효능감은 스스로에 대해서 만족하는 정도를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는 문항 수는 10개이고, 요인부하값이 0.68 ~ 0.33의 범주에 있다.

자기효능감은 자신감과 고난극복태도의 두 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된다. 자신감은 자신의 의지를 실현하려는 적극적 태도와 타인의 의사를 존중하며 집단구성원의 공통분모를 찾으려는 태도를 포괄한다. 상호존중의 요소를 포괄하는 바람직한 요소도 발견되었다. 이러한 태도는 Triandis(1995)가 수직적 집단주의(vertical collectivism)라 분류한 문화에서 나타나는 자기효능감과 일정 부분 공유하는 요소를 지닌다. 자신감과 고난을 극복하려는 자세와 결합하여 독립된 요인을 구성하였다. 이는 개인주의 문

화에서 자기실현과 관련된 개념(Bandura, 1982)과는 다소 다르다. 즉 수직적 집단주의 문화에서의 자기효능감이 식별되었다.

표 4에서 자기효능감의 측정은 비교적 많은 문항에 의해 측정되었고, 요인부하값에서도 큰 격차가 존재한다. 이런 경우 측정오차가 발생할 개연성이 있다. 따라서 측정변수를 적정한 수로 줄이는 문항 묶음화(item parceling) 방식을 도입하여 측정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내용상 상관이 높은 문항을 짝지어서 측정변수로 활용하였다(Kishton, & Widaman, 1994).

구조방정식을 위한 자기효능감 요인의 측정구조는 고난극복자세와 자신감의 두 개의 다문항 지표변수를 통해 측정하는 방식을 활용하였다(Little, Cunningham, Shahar, & Widaman, 2002). 즉 고난극복자세는 ‘사람들의 다른 생각을 수렴하는 방안은 있다’와 ‘언젠가 겪었던 어려움은 능력을 향상시키는 기회가 되었다’의 두 문항에 대한 응답을 합하여 이루어지는 하나의 지표변수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자신감은 다른 8개 항목의 합계로 산출되는 다른 하나의 지표변수로 측정되었다. 두 개의 변수는 표 8에서 (자기효능감1)과 (자기효능감2)로 각기 표시되었다.

심리적 태도 요인의 신뢰도는 자아상의 경우 0.81 ~ 0.87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심리적 건강성과 심리적 병리성의 경우에는 0.51 ~ 0.59로 낮게 나타났다.

유교적 가치의 신뢰도와 타당도

유교적 가치에 관한 요인분석은 4개의 가치관을 식별하였다. 이는 선행연구가 식별한 요인구성과 뚜렷한 차이를 지닌다. 첫째 요인은 신뢰, 성실, 검소, 깨끗한 몸가짐, 조심, 예의범절, 인내, 적응, 창피한 줄 아는 것의 9

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는 Chinese Culture Connection이 행한 선행 연구에서 노동역동성이라 구분한 요인과 유사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장기지향성이라 명명하였다.

둘째 요인은 포용, 인화, 너그러움, 교양, 유대, 겸손, 정의감, 자비로운 권위, 근면, 부패에 대한 저항, 안정성 있는 성격의 11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선행 연구에서 통합으로 분류된 요인과 유사하지만 도덕성 관련 항목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본 연구는 이를 집단주의 요인으로 명명한다.

셋째 요인은 보수적 태도, 무욕, 분수 지키기, 경쟁하지 않기, 체면, 전통존중, 서열준수의 6개 항목으로 구성된다. 이 요인은 보수주의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넷째 요인은 사회적 의례, 인사치레, 윗사람에 대한 충성, 효도의 4개 항목으로 이루어지며 사회성으로 명명되었다.

유교적 가치관의 신뢰도는 0.75 ~ 0.93의 범주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정구조를 위해 요인부하값을 살펴보면, 장기지향성 요인을 구성하는 9개 항목의 요인부하값은 0.85 ~ 0.64의 범주에 있어 편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개 문항으로 구성되는 집단주의 요인의 요인부하값은 0.83 ~ 0.41의 범위에 있고, 역시 7개의 문항으로 구성되는 보수주의의 요인부하값은 0.63 ~ 0.41의 범위에 있다.

장기지향성과 집단주의는 각기 9개와 11개의 비교적 많은 문항에 의해 측정되고 요인을 구성하는 문항의 요인부하값에 있어 큰 격차가 발견된다. 이런 경우 측정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측정변수를 적정한 수로 줄이는 문항 묶음화 방식을 도입하였다. 자기효능감에서와 같이 상관이 높은 문

항을 짝지어서 측정변수로 쓰는 방법을 활용하였다.

장기지향성은 신뢰성, 적응성, 조심성, 성실성의 4개 항목의 합계로 산출되는 하나의 지표변수와 예의범절, 인내, 근검절약, 깨끗한 몸가짐, 창피한 줄 아는 것의 5개 항목의 합계로 산출되는 다른 하나의 지표변수를 매개로 하여 측정되었다. 두 개의 지표변수는 표 8에서 (장기지향성1)과 (장기지향성2)로 각기 표시되었다.

집단주의는 포용, 인화, 너그러움, 교양, 유대, 겸손의 6개 항목의 합계로 측정되는 하나의 지표변수와 정의감, 자비로운 권위, 근면, 부패 저항, 안정성 있는 성격의 5개 항목에 의해 측정되는 다른 하나의 지표변수를 매개로 하여 측정되었다. 두 개의 지표변수는 표 8에서 (집단주의1)과 (집단주의2)로 각기 표시되었다.

보수주의와 사회성은 구성 항목에 대한 평가의 합계로 산출되는 단일 지표로 각기 측정되었다.

가치요인의 성격을 살펴보면, 장기지향성 요인에서는 신뢰성이 핵심 개념이며, 집단주의 요인에서는 화합이 핵심 개념이다. 한편 보수주의 요인에서는 보수적 태도가, 사회성 요인에서는 의례가 각기 핵심 개념이 되고 있다. 장기지향성에는 수치의 내면적 가치가 포함되지만, 보수주의에는 체면이라는 외면적 가치가 포함된다는 점에서 대조된다.

한편 도덕성과 관련된 유교적 가치는 ‘정의감’, ‘부패에 대한 저항’, ‘초연하고 깨끗한 몸가짐’, ‘창피한 줄 아는 것’의 4개 문항에 의해 파악되는데, 본 연구가 밝힌 도덕성의 요인구조는 선행연구와 차이를 지닌다. Chinese Culture Connection이 행한 선행 연구는 통합요

표 5. 유교적 가치의 요인구조

요인명	요인부하량	설문문항
장기지향성 (신뢰성)	0.858	신뢰성
	0.850	성실성
	0.804	근검절약
	0.790	초연하고 깨끗한 몸가짐
	0.770	조심성
	0.767	예의범절
	0.750	인내(참는 것)
	0.690	창피한 줄 아는 것
	0.687	적응성
집단주의	0.831	다른 사람에 대한 포용성
	0.805	인화(남과 조화 유지)
	0.795	너그러운 마음씨
	0.764	자기계발(교양)
	0.711	남과의 유대
	0.707	겸손
	0.647	정의감
	0.583	자비로운 권위
	0.572	근면(부지런히 일하는 것)
	0.497	부패에 대한 저항
	0.413	안정성 있는 성격
보수주의	0.634	보수주의적 태도 유지
	0.620	물질에 대한 욕심이 없는 것
	0.563	자신의 지위와 위치에 만족하고 분수에 맞게 사는 것
	0.527	경쟁하지 않는 것
	0.510	체면을 지키는 것
	0.452	전통의 존중
	0.418	지위에 따라 서열을 짓고, 이 서열을 지키는 것
사회성	0.847	각종 의식(결혼·장례·제사 등)과 사회적 의례를 지키는 것
	0.686	인사치레(문안·선물·신세 등)
	0.529	윗사람에의 충성
	0.432	부모나 조상에 대한 효도

표 6. 심리적태도와 유교적가치에 대한 2차 요인분석

요 인	심리적 건강성	도덕성	유교적 가치	전통적 의례
자아존중감	0.913	0.051	-0.017	0.038
자아효능감 1	0.845	0.098	0.139	-0.009
자아효능감 2	0.660	0.137	0.137	-0.089
장기적 안목	0.553	0.131	0.136	-0.009
신중성	0.388	0.066	0.020	0.022
근시안적 이기주의	-0.130	-0.546	-0.064	0.036
조급성	0.022	-0.502	0.060	-0.015
유보적 태도	-0.202	-0.290	-0.024	-0.025
장기지향성(신뢰성)	0.071	0.264	0.841	0.172
집단주의	0.256	0.015	0.894	0.212
보수주의	-0.073	-0.018	0.162	0.977
사회성	0.079	-0.147	0.373	0.532
절제요인	0.012	0.818	0.085	-0.033
공정요인	0.104	0.728	0.081	-0.187
책임요인	0.374	0.436	-0.061	0.121
칭려요인	0.192	0.559	0.178	-0.045
고유치	2.767	2.479	1.786	1.378
설명변량(%)	17.295	15.497	11.161	8.611

인을 제외한 노동역동성, 仁과 도덕적 규율의 3개 요인에서 나누어 식별되었고, 차재호와 장영철의 연구는 ‘정의가치’와 ‘무경쟁요인’의 2개 요인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집단주의에 ‘정의감’과 ‘부패에 대한 저항’의 2개 항목이 포함되고, 장기지향성에 ‘초연하고 깨끗한 몸가짐’과 ‘창피한 줄 아는 것’의 2개 문항이 포함된다. ‘정의감’과 ‘부패에 대한 저항’은 사회적 태도인 반면 ‘초연하고 깨끗한 몸가짐’과 ‘창피한 줄 아는 것’은 개인의 생활 지침의 성격을 지닌다. 사회적 영역에서의 도덕성은 집단주의의 하위요인을 구성하고, 개인의 생활 지침으

로서의 도덕성은 장기지향성의 하위요인을 구성한다.

도덕성이 장기지향성과 집단주의 요인에 의해 파악된다는 점이 선행연구가 식별한 요인 구조와의 차이이다. 선행연구와의 차이에 대하여는 조사 시점에서 차이와 조사 대상에 있어서의 차이가 제시될 수 있지만, 이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가 요구된다.

2차 요인분석

2차 요인분석을 통해 요인구조를 살펴보면 표 6과 같이 정리된다. 이 표는 인간 감정이 서로 연결된 상태를 보여준다. 우선 도덕성

관련 4개의 하위요인이 같이 묶이면서 동시에 심리적 병리성 요인과 같은 요인을 구성한다. 근시안적 이기주의(조급성)와 충동성 그리고 유보적 태도는 함께 묶여 심리적 병리성 요인을 구성한다. 이러한 요인구조는 낮은 도덕성이 심리적 병리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자아상(자아존중감과 자기효능감)과 장기적 안목 및 신중성 하위요인이 동일 요인으로 묶여져 심리적 건강성의 상위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심리적 병리성과 심리적 건강성이 하나의 兩極 척도(one bipolar scale)로 파악되지 않고, 서로 다른 두 개의 單極 척도(two different unipolar scales)로 파악되었다.

한편 유교적 가치 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장기지향성과 집단주의는 동일 요인으로 함께 묶여 유교의 지배적 가치관 구성을 보여준다. 한편 보수주의와 사회성은 유교의 지배적 가치관과 구분되는 별도의 요인을 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덕성은 장기지향성과 집단주의의 하위 요인으로서 식별되었다는 점이 특징이다. 장기지향성에 포함된 ‘초연하고 깨끗한 몸가짐’과 ‘창피한 줄 아는 것’의 2개 문항은 개인의 청렴한 생활태도와 내면적 올곧은 마음가짐을 반영한다. 이는 성실, 검소, 신중, 예의범절, 인내의 가치와 성격상 갈등을 빚지 않는다.

반면 집단주의 요인은 조화 가치가 가장 지배적이며 동시에 정의 가치가 그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므로 집단주의에서의 도덕성은 正義가 調和에 부수되는 가치로 본다는 전통적 입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따라서 正義를 현실 세계에서 실천하고자 할 때 조화

의 가치로부터 제약받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정의의 가치가 화합의 가치에 부수적 요소로 인식되는 점은 사회 또는 집단의 화합을 위해서는 구성원이 집단 내에서의 상황이 정의롭다고 여기는 인식이 충족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또는 집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정의 자체의 추구는 집단구성원으로부터 지지받기 어렵다는 문화적 속성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하다. 정의를 추구함에 있어 분명한 한계를 설정하는 것이 집단주의 문화의 제약이다.

그러므로 부패한 권력에 저항하는 내부고발자와 부당한 관행을 바로잡고자 하는 개혁주의자에 대한 집단구성원의 반응은 옳고 그름 자체보다는 집단의 화합에 보다 무게 중심이 쏠리는 행동방식으로 연결되기 쉽다. 옳고 그름 자체만을 추구하여 집단의 화합을 저해하는 행위를 돌출행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은 이러한 집단화합을 우선시하는 정서에 바탕을 둔다.

여기서 화합 중시란 변시만이 지적하였듯이 대세를 따르는 태도이다. 그리고 대세는 권력자의 영향력과 구성원의 지지 정도에 의해 결정된다. 옳고 그름만으로는 대세가 형성되지 않는다. 이러한 현상의 바탕에는 외부에 촉각을 세우는 권위주의적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구성원이 협력하여 바람직한 것을 새로이 창출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는 원인에 대하여 윤태림은 결핍감을 그리고 Hofstede는 의존심리를 지적하였다.

그러므로 집단 내에서 불의와 부조리에 대하여 비판하는 목소리는 불평의 수준에 머물기 쉽고, 권력자는 자신의 과오를 지적하고 문제를 제기하는 구성원이 집단적 압력의 범

위를 넘어서는 것이 좀처럼 일어나지 않는다는 경험적 판단에 따라 과오를 시정하기보다는 비판자를 회유하여 무마하려는 경향성을 지닌다.

우리 사회에서 부패를 척결하기 어렵게 하는 문화적 배경은 정의의 가치가 집단주의의 하위요인으로 위치한다는 배열상의 특징에 있다. 한편 장기지향성에 내재된 올곧은 성품은 개인 생활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요인이다. 부패한 집단에 맞서지는 않아도 개인은 독자적으로 청렴한 생활을 영위한다.

장기지향성과 집단주의 문화요인의 작용을 내부고발자 개인의 정신 내적 역동으로 해석하면, 내부고발자가 조직 내부의 모순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을 것을 주장하는 것은 그가 청렴하고 올곧은 성품을 지녔다는 성품적 특성에만 기인하는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보편적 가치를 집단과의 화합보다 중요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보편적 원칙의 실현과 인권 보호가 자신이 속한 집단과 화합하는 것보다 중요하다고 느끼는 예외적 인물은 간헐적으로 사회의 전면에 부상하여 사회적 부조리의 해결을 촉구한다. 이들은 그가 속한 집단의 오류를 지적하고 시정할 것을 요구한다.

내부고발자가 제기하는 문제는 종종 조직

내부에서보다는 조직 외부에서 보다 큰 반향을 일으키고 지원세력을 얻게 되는데, 이는 그들이 추구하는 보편적 원칙이 일반인의 마음에 공명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결 과

도덕성 수준 측정 결과

청소년의 도덕성 수준은 Likert 5점 척도로 계량화되어 이론적 최대치는 5이다. 20개 문항에 대한 평균치는 3.44($SD = 0.49$)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일반적으로 여자($M = 3.51, SD = 0.45$)가 남자($M = 3.37, SD = 0.54$) 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책임요인에서는 남녀 간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측정결과를 하위요인별로 비교하면, 청렴요인(3개 문항)은 평균 3.64(남자 $M = 3.53, SD = 0.90$; 여자 $M = 3.73, SD = 0.78$)으로 가장 높고, 절제요인(7개 문항)은 평균 3.62(남자 $M = 3.59, SD = 0.68$; 여자 $M = 3.65, SD = 0.57$)으로 다소 낮고, 그리고 공정요인(6개 문항)은 평균 3.43(남자 $M = 3.26, SD = 0.72$; 여자 $M = 3.56, SD = 0.60$)으로 더욱 낮아지다가, 책임요인(4개 문항)은 평균 3.00(남자 $M = 3.00, SD = 0.74$; 여자 M

표 7. 한국 표본에 적용된 PBI 평가결과

척 도	남 자			여 자			전 체		
	M	SD	N	M	SD	N	M	SD	N
어머니 애정(Maternal Care)	25.2	6.5	650	26.0	6.4	803	25.6	6.5	1,460
어머니 보호(Maternal Protection)	13.5	6.3	651	12.9	6.0	805	13.2	6.1	1,463
아버지 애정(Paternal Care)	21.4	7.7	643	23.5	7.0	799	22.6	7.4	1,449
아버지 보호(Paternal Protection)	12.7	6.7	640	13.0	6.3	796	12.9	6.5	1,443

= 3.00, $SD = 0.65$)에서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다. 사용되었다.

자녀양육행위 측정 결과

부모의 양육행위에 대한 자녀의 평가는 표 7에 요약되어 있다. 남녀 모두를 포함하는 전체 표본에 대한 측정 결과, MCI(maternal care index) 평균값이 25.6($SD = 6.5$)으로, MPI(maternal protection index) 평균값이 13.2($SD = 6.1$)로 나타났다. 그리고 PCI(paternal care index) 평균값이 22.6($SD = 7.4$)으로, PPI(paternal protection index) 평균값은 12.9($SD = 6.5$)로 각기 나타났다.

선형구조관계모형(LISREL)에 의한 계량분석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의 종합적 양상과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선형구조관계모형 분석이 행하여졌다. 분석도구로는 LISREL version 8.54가 활용되었다. 관련 문항 모두에 대하여 유효한 응답이 포함된 데이터는 217명으로부터 수집되었다. 공분산행렬 자료를 사용하였고, 추정방법은 최대우도법이

변인상관. 분석에 포함된 7개의 부모 양육행위 관련 변인, 7개의 심리적 태도 변인 그리고 4개의 유교적 가치 변인의 상관계수는 표 8과 같다. 하위요인을 포함하면 모두 25개 변인이 분석에 포함되었다.

연구모형. 연구모형은 그림 1에서와 같은 이론적 연구모형을 바탕으로 개념화되었다. 이러한 모형을 바탕으로 경험적 자료를 검증하는 분석모형을 구체화하면 그림 2와 같다. 여기서 도덕성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14개의 독립변인이 영향을 미치는 구조관계이다. 그림에서는 이론 변인(latent variable)만 표시되고 외생 변수와 측정 변수는 표시되지 않았다.

그림 2의 모형에 포함된 변인은 η_1 (etha 1) - η_{14} (etha 14)로 표시된다. 도덕성이 종속 변인이며 이는 η_1 로 표시된다. η_1 를 구성하는 하위요인은 ξ_1 (ksi 1) - ξ_4 (ksi 4)로 표시된다. η 와 ξ 사이의 화살표는 측정구조를 표시한다. η_1 은 4개의 하위요인 $\xi_1, \xi_2, \xi_3, \xi_4$ 를 통해서 측정된다.

13개의 독립변인은 η_2 - η_{14} 로 표시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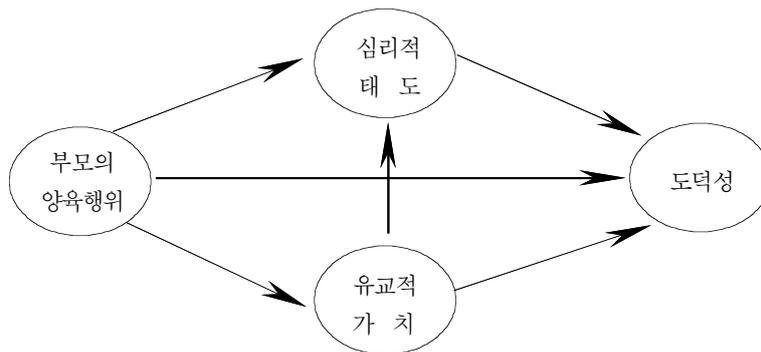


그림 1. 도덕성 형성에 관한 이론모델

표 8. 광원변수 상관계수표

	PB1	PB2	PB3	PB4	PB6	PB6	PB7	PSY1	PSY2	PSY3	PSY4	PSY5	PSY6	PSY7	PSY8	CU1	CU2	CU3	CU4	CU5	CU5	NI1	NI2	NI3	NI4
PB1	1.00																								
PB2	-.55	1.00																							
PB3	-.29	.46	1.00																						
PB4	.56	-.36	-.23	1.00																					
PB6	-.31	.44	.23	-.52	1.00																				
PB6	-.23	.26	.50	-.41	.41	1.00																			
PB7	-.19	.42	.10	-.49	.52	.39	1.00																		
PSY1	.36	-.26	-.15	.24	-.14	-.10	-.06	1.00																	
PSY2	.25	-.34	-.20	.12	-.19	-.10	-.14	.59	1.00																
PSY3	.32	-.29	-.16	.19	-.25	-.02	-.09	.47	.69	1.00															
PSY4	.27	-.39	-.19	.12	-.22	-.06	-.14	.36	.53	.57	1.00														
PSY5	.12	-.22	-.17	.06	-.25	-.06	-.12	.29	.49	.37	.39	1.00													
PSY6	-.16	.19	.24	-.13	.09	.13	.03	-.12	-.19	-.14	-.10	-.00	1.00												
PSY7	-.24	.11	.20	-.15	.09	.19	.03	-.09	.06	-.06	-.19	-.02	.29	1.00											
PSY8	-.16	.16	.16	-.19	.09	.09	-.05	-.19	-.13	-.14	-.05	.04	.31	.11	1.00										
CU1	.11	-.11	-.10	.16	-.11	.00	.03	.09	.16	.13	.14	.02	-.09	-.02	-.09	1.00									
CU2	.06	-.09	-.07	.10	-.03	.02	.09	.09	.16	.09	.12	-.00	-.09	.00	-.09	.97	1.00								
CU3	.10	-.13	-.07	.16	-.16	.05	.04	.23	.34	.33	.31	.19	-.14	.02	-.07	.62	.62	1.00							
CU4	.06	.01	-.06	.19	-.12	.02	.06	.16	.32	.26	.20	.12	-.10	.04	-.04	.62	.61	.74	1.00						
CU5	-.09	.14	.14	.04	-.03	.14	.06	-.09	-.04	-.09	-.01	.00	.06	.04	.01	.26	.32	.31	.40	1.00					
CU6	.07	-.07	.09	.00	-.10	.12	-.05	.09	.07	.10	.10	.07	.07	.06	-.07	.44	.45	.44	.41	.46	1.00				
NI1	.33	-.13	-.33	.19	-.07	-.23	.06	.06	.09	.20	.17	.09	-.34	-.34	-.17	.16	.16	.03	.13	-.06	-.03	1.00			
NI2	.19	-.09	-.29	.16	-.01	-.24	.01	.10	.17	.22	.19	.09	-.40	-.30	-.16	.09	.14	.11	.10	-.16	-.21	.42	1.00		
NI3	.16	-.04	-.12	.11	-.02	-.11	.06	.34	.27	.14	.13	.17	-.10	-.19	-.14	.04	.06	.03	.11	.09	-.09	.36	.24	1.00	
NI4	.19	-.13	-.24	.16	.02	-.21	.12	.20	.19	.16	.16	.09	-.36	-.09	-.22	.20	.21	.16	.22	-.06	.01	.49	.36	.26	1.00
PB1	어머니애정			PSY1	자아존중감			CU1	장기지향성1					NI1	전체요인										
PB2	어머니자극			PSY2	자기포능감1			CU2	장기지향성2					NI2	공정요인										
PB3	어머니용서			PSY3	자기포능감2			CU3	집단주의 1					NI3	책임요인										
PB4	아버지애정			PSY4	장기적안락			CU4	집단주의 2					NI4	섬염요인										
PB6	아버지자극			PSY6	신중성			CU5	보수주의																
PB6	아버지용서			PSY6	근시안적 이기주의			CU6	사회성																
PB7	아버지따움			PSY7	충동성																				
				PSY8	유보적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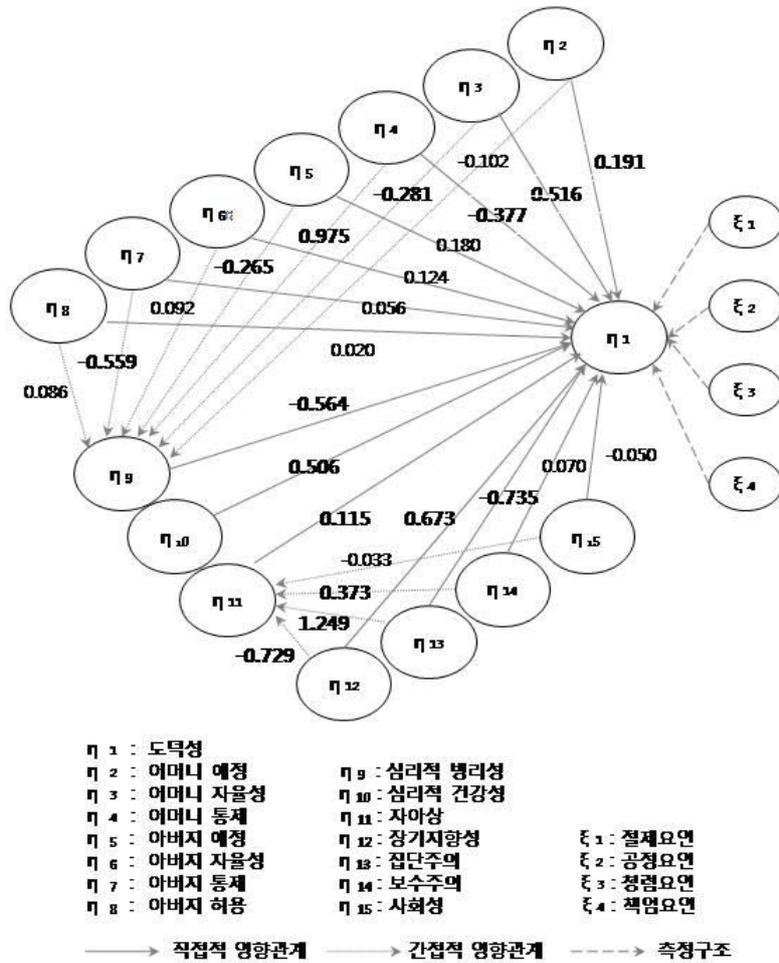


그림 2. 도덕성 형성에 관한 선형구조모형

부모의 자녀 양육행위는 $\eta_2 - \eta_8$ 로 표시된다. 심리적 병리성은 η_9 로 표시된다. 심리적 건강성은 η_{10} 로 표시되며, 자아상은 η_{11} 로 표시된다. 유교적 가치에는 장기지향성(η_{12}), 집단주의(η_{13}), 보수주의(η_{14}) 및 사회성(η_{15})이 포함된다.

η 와 η 사이의 화살표는 영향관계의 방향성을 표시하며, 영향의 정도는 β (beta) 계수로 표시된다.

그림 2에서 직선은 도덕성에 대한 직접적 영향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그리고 점선은 경로설정을 통한 간접적 영향관계를 표시한 것이다. 심리적 병리성과 자아상은 도덕성 형성의 방향을 결정짓는 간접적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심리적 병리성은 부모의 양육행위에 의해서 형성되고, 자아상은 유교적 가치에 비추어 형성된다고 상정하는 경로를 설정하였다.

표 9. 구조방정식의 부합도 지표

항 목	지 표
Root Mean Square Error of Approximation	0.068
Root Mean Square Residual	1.107
Standardized RMR	0.057
Goodness of Fit Index	0.879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에 대한 분석결과 는 표 9와 같다. 제시한 구조모형과 자료간의 일치된 정도를 나타내주는 RMSEA는 0.068으로 나타났고, 부합도는 0.879 수준으로 산출되었다.

이 수준의 부합도는 연구모형이 전체적으로 설명력을 지니는 적합한 것임을 의미한다. 도덕성과 심리적 태도 요인 측정변수에서 발견된 미흡한 신뢰도로 인해 우려된 일반화의 한계성은 연구모형의 적실성으로 상당 부분 극복되었다고 하겠다.

직접적 영향관계의 양상. 부모의 양육행위가 자녀의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만을 분리하기 위해 부모의 양육행위 관련 7개 변인이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대한 선형구조모형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통계적인 유의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심리적 태도가 배제된 부모의 영향은 적절히 파악할 수 없는 것임을 의미한다.

종합분석: 본 연구가 다룬 모든 요인이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을 선형구조모형 분석을 통해서 파악한 것이 표 10로 요약된다. 이를 선형구조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방정식 1)과 같으며, 이의 결정계수 R²는 0.793로 산출되었다.

표 10.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의 계수 추정

변수명	β 계수 (SE)	t-value
어머니 애정	0.191 (0.096)	1.977
어머니 자율성	0.516 (0.157)	3.289
어머니 통제	-0.377 (0.070)	-5.397
아버지 애정	0.180 (0.123)	1.464
아버지 자율성	0.124 (0.117)	1.052
아버지 통제	0.056 (0.090)	0.624
아버지 허용	0.020 (0.068)	0.293
자아상	0.115 (0.063)	1.843
심리적 건강성	0.506 (0.109)	4.647
심리적 병리성	-0.564 (0.071)	-7.956
장기지향성	0.673 (0.080)	8.420
집단주의	-0.735 (0.069)	-10.663
보수주의	0.070 (0.073)	0.965
사회성	-0.050 (0.093)	-0.543
Error	0.207 (0.068)	3.031

R² = 0.79

주. β 계수가 유의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begin{aligned} \text{도덕성} = & 0.191 \text{ 어머니 애정} + 0.516 \text{ 어머니 자율} - 0.377 \text{ 어머니 통제} + 0.180 \text{ 아버지 애정} \\ & - 0.124 \text{ 아버지 자율} + 0.056 \text{ 아버지 통제} + 0.020 \text{ 아버지 허용} + 0.115 \text{ 자아상} - \\ & 0.506 \text{ 심리적 건강성} - 0.564 \text{ 심리적 병리성} + 0.673 \text{ 장기지향성} - 0.735 \text{ 집단주의} + 0.070 \\ & \text{보수주의} - 0.050 \text{ 사회성} \\ & \dots\dots\dots \text{(방정식 1)} \end{aligned}$$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그림 2를 통해서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η₁(어머니 애정), η₂(어머니 자율), η₃(어머니 통제), η₄(심리적 병리성)

성), η_{10} (심리적 건강성), η_{11} (자아상), η_{12} (장기지향성), η_{13} (집단주의)이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집단주의이며, 가장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아상이다.

β_{14} (0.191)는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어머니 애정의 상대적 영향의 정도를, β_{13} (0.312)는 어머니 자율을 그리고 β_{14} (-0.377)는 어머니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를 각기 나타낸다. β_{19} (-0.564)는 심리적 병리성을, β_{10} (0.506)는 심리적 건강성의 영향을 각기 나타낸다. β_{12} (0.673)는 장기지향성의 영향을, β_{13} (-0.735)는 집단주의의 영향을 나타낸다.

부모 양육행위 가운데 자녀의 도덕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어머니 애정, 어머니 자율성, 아버지 애정, 아버지 자율, 아버지 통제 및 아버지 허용이다. 그리고, 어머니 통제는 오히려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양육행위 가운데 통계적 유의성을 지니는 변인은 어머니 애정(0.191), 어머니 자율(0.516), 어머니 통제(-0.377)이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어머니 통제가 도덕성 형성에 매우 역기능적이라는 점을 제시한다.

한편 이 모형에서는 아버지 관련 변수가 통계적 유의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버지의 영향력이 없어서라기보다는 다른 변인 특히 유교적 가치에 의해 대리되어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별도의 모델을 통해 추가 분석이 이루어진다.

표 10에서 심리적 병리성과 심리적 건강성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병리성의 β 계수가 -0.564로, 심리적 건강성의 β 계수는 0.506으로 각기 나타나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작용하며, β 계수로 파악된 영향의 정도는 비슷한 수준이다.

유교적 가치 요인을 살펴보면, 장기지향성과

집단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지향성의 β 계수(0.673)와 집단주의의 β 계수(-0.735)는 서로 상반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수주의와 사회성의 영향은 통계적 유의성을 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독립변인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집단주의와 심리적 병리성이다. 그리고 장기지향성과 심리적 건강성이 상당 부분 이들 변인의 부정적 영향을 상쇄시키고 있다.

아버지 역할: 아버지의 역할을 탐색하기

표 11.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변인의 계수 추정 (유교 가치 제외)

변수명	β 계수 (SE)	t-value
어머니 애정	0.126 (0.149)	0.849
어머니 자율성	0.654 (0.200)	3.728
어머니 통제	-1.205 (0.261)	-4.622
아버지 애정	0.535 (0.125)	4.926
아버지 자율성	0.632 (0.252)	2.502
아버지 통제	0.885 (0.251)	3.523
아버지 허용	-0.554 (0.257)	-2.159
자아상	-0.608 (0.161)	-3.782
심리적 건강성	0.752 (0.139)	5.398
심리적 병리성	-0.554 (0.170)	-3.256
Error	0.235 (0.149)	1.578

$R^2 = 0.77$

주. β 계수가 유의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RMSEA = 0.0629

RMR = 1.099

Standardized RMR = 0.0491

Goodness of Fit Index = 0.881

위해 (방정식 1)에서 유교적 가치변인을 제외한 별도의 모형을 설정하여 부모 양육행위 관련 7개 변인의 계수를 추정하면 표 11과 같이 요약된다. 이 구조방정식의 결정계수 R^2 는 0.765로 산출되었다.

이 모형에 포함된 10개 변인 가운데 아버지 양육행위 관련 4개 변인 모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바뀐다. 아버지 양육행위는 표 10에서는 유의하지 않지만, 표 11에서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이 가운데 아버지 허용의 β 계수만이 썩의 값을 지니고, 아버지 애정과 자율성 그리고 통제는 β 계수가 모두 正의 값을 지닌다. 아버지 통제의 β 계수(0.885)가 가장 크고, 아버지 자율성(0.632)과 아버지 애정(0.535)의 순으로 낮아진다. 이는 아버지는 유교적 가치로 대변되는 사회적 규범을 지도하는 기능을 행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위해서 아버지는 통제와 자율 뿐 아니라 애정을 표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전통적 자녀양육의 원리인 父義 慈母의 교육원리는 현재에도 적용되는 원리라는 점이 통계적으로 뒷받침되었다.

유교적 가치 형성: 유교적 가치 내면화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 양육행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본 연구가 식별한 네 가지의 유교적 가치를 각기 종속변수로 하고, 7개의 부모 양육행위 변인을 독립변수로 하여 계수를 추정한 결과가 표 12에 요약되어 있다. 여기서 아버지의 허용은 장기지향성과 사회성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고, 아버지의 통제는 집단주의 형성에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교적 가치 형성에 미치는 부모 양육행위의 영향에 대해

표 12. 유교적 가치 형성에 미치는 양육행위의 계수 추정

변수명	장기지향성		집단주의		보수주의		사회성	
	β 계수	t-value						
어머니 애정	-0.465	-6.172	-0.303	-4.371	-0.365	-3.173	-0.239	-1.608
어머니 자율성	-0.480	-4.939	0.502	4.873	-0.213	-1.441	-0.180	-1.570
어머니 통제	-0.422	-3.420	-2.155	-16.127	0.079	0.475	-0.413	-3.026
아버지 애정	0.438	4.229	0.853	8.628	0.294	3.284	0.281	1.653
아버지 자율성	-2.066	-24.472	-1.669	-21.053	-1.189	-6.291	-1.490	-13.651
아버지 통제	0.837	9.100	2.759	36.619	0.289	4.066	0.923	9.377
아버지 허용	2.021	20.800	0.567	7.353	1.191	14.951	1.135	12.171
결정계수	$R^2 = 0.63$		$R^2 = 0.61$		$R^2 = 0.21$		$R^2 = 0.35$	

주. β 계수가 유의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부합도 지수

RMSEA = 0.0652

RMR = 1.106

Standardized RMR = 0.0506

Goodness of Fit Index = 0.881

여는 별도의 연구가 요구된다.

간접적 영향관계의 양상. 간접적 영향관계에 대한 분석은 심리적 병리성과 자아상을 경로로 설정함으로써 접근되었다. 심리적 병리성은 부모의 양육행위와의 관계 속에서 고찰되고, 자아상은 유교적 가치와의 관계 속에서 분석된다. 이러한 경로 설정은 (방정식 1)과 동시에 고찰되었다.

심리적 병리성: 심리적 병리성은 개인이 성장과정에서 지니게 된 심리적 고통으로서 도덕성에 대하여 심대한 파괴성을 지닌다. 이러한 파괴성에 주목하여 이의 형성에 미치는 부모의 양육행위 관련 변인의 영향을 독자적으로 살펴본 것이 표 13에 요약되어 있다. 이를 선형구조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방정식 2)와 같으며, 이의 결정계수 R^2 는 0.344로 산출되었다.

$$\text{심리적 병리성} = -0.102 \text{ 어머니 애정} - 0.281 \text{ 어머니 자율} + 0.975 \text{ 어머니 통제}$$

표 13. 심리적 병리성에 미치는 부모 양육행위의 계수 추정

변수명	β 계수 (SE)	t-value
어머니 애정	-0.102 (0.071)	-1.448
어머니 자율성	-0.281 (0.071)	-3.974
어머니 통제	0.975 (0.070)	13.929
아버지 애정	-0.265 (0.080)	-3.721
아버지 자율성	-0.092 (0.072)	-1.273
아버지 통제	-0.559 (0.068)	-8.212
아버지 허용	0.086 (0.069)	1.237

$R^2 = 0.34$

주. β 계수가 유의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0.265 \text{ 아버지 애정} - 0.092 \text{ 아버지 자율} - 0.559 \text{ 아버지 통제} + 0.086 \text{ 아버지 허용} \dots\dots\dots (\text{방정식 } 2)$$

그림 2에서 심리적 병리성은 η_3 로 표시되었다. $\beta_{33}(-0.281)$ 은 η_3 에 미치는 η_2 (어머니 자율)의 영향 정도를 나타낸다. $\beta_{34}(0.975)$ 는 η_4 (어머니 통제)의 영향을 나타내며, $\beta_{35}(-0.265)$ 는 η_5 (아버지 애정)의 영향을 나타낸다.

(방정식 2)에서는 어머니의 통제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심리적 병리성 형성에 대하여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병리성에 미치는 어머니 통제의 영향을 나타내는 $\beta_{34}(0.975)$ 는 어머니 통제가 심리적 병리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임을 나타낸다. 악화된 심리적 병리성은 다시 도덕성을 저하시킨다. 이러한 관계의 구조는 어머니의 통제는 도덕성 형성에 대하여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모두 否定的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드러낸다.

반면 어머니의 자율은 물론 아버지의 애정과 아버지의 자율 그리고 아버지의 통제는 심리적 병리성에 대하여 否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변인은 심리적 병리성을 약화시키는 기능을 행하며, 이로 인해 간접적으로는 도덕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부모의 애정과 자율은 자녀의 성품을 건전하게 발달시키는 긍정적 요소를 지닌다고 하겠다.

자아상: 자아상은 스스로에 대한 인식으로서 내적 요구와 외적 압력을 조화시킴으로써 형성되는 것인 만큼 유교적 가치 범주에 속하는 요인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상정되었다.

표 14. 자아상에 미치는 유교적 가치요인의 계수 추정

변수명	β 계수 (SE)	t-value
장기지향성	-0.729 (0.070)	-10.447
집단주의	1.249 (0.107)	11.633
보수주의	0.373 (0.100)	-3.751
사회성	-0.033 (0.072)	-0.455

R² = 0.50

주. β 계수가 유의수준에 도달한 경우에는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이의 형성에 미치는 유교 가치 변인의 영향을 독자적으로 살펴본 것이 표 14에 요약되어 있다. 이를 선형구조방정식으로 표시하면 (방정식 3)과 같으며, 이의 결정계수 R²는 0.504 로 산출되었다.

$$\text{자아상} = -0.729 \text{ 장기지향성} + 1.249 \text{ 집단주의} - 0.373 \text{ 보수주의} - 0.033 \text{ 사회성} \dots\dots (\text{방정식 3})$$

자아상은 그림에서 η₁₁로 표시되었다. 여기서 η₁₂(장기지향성)이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은 β_{11 12}(-0.729)로 표시된다. η₁₄(보수주의)가 자아상에 미치는 영향은 β_{11 14}(-0.373)로 나타났고, 그리고 집단주의의 영향을 나타내는 β_{11 13}(1.249)은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정식 3)에서 집단주의는 자아상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正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장기지향성과 보수주의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否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주의가 유의미한 변인으로 드러난 것은 자아상의 의미가 자신이 속한 집단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의미를 찾는 타인지향적 인정 욕구를 충족시키는 점임을 반영한다.

반면 장기지향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否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자아상이 스스로에 대한 신뢰와 깨끗한 몸가짐을 통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자아상은 내재적 가치와 의미로 채워지기보다는 또래 집단 또는 집단에 영합함으로써 얻어지는 공허한 찬사로 채워지는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장기지향성이 강하면 스스로에 대하여 부족하다고 인식하는 경향성이 발견된다. 스스로를 높게 평가하는 자긍심보다는 오히려 내적 가치를 기준으로 스스로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겸손함 속에서 높은 도덕성이 발견된다. 이는 청소년이 자신만의 고유한 정체성 형성으로 향하는 내적 욕구가 상대적으로 소홀히 취급되면서, 또래 집단의 시선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상황에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즉 청소년에게 있어서의 자아상은 외부의 시선에 치우친 주체성 결여의 성향을 지니는 것으로 분석된다. 자아상이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는 β 계수가 0.115의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 것은 자아상이 상당부분 인간 내면에서 분출하는 힘에 근거하기보다는 타인지향적 인정욕구가 또래 집단을 통해 충족된 虛像에 근거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간접적 영향관계를 매개하는 심리적 병리성과 자아상은 이렇게 도덕성 형성에 대하여 각기 다른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심리적 병리성이 지니는 파괴성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자아상을 이해하는 것은 청소년의 정신세계를 이해하는데 있어 중요한 주제로 보이며, 이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논 의

도덕성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 본 연구는 도덕성 구성 요인과 이에 대한 측정으로부터 시작하였다. 도덕성 측정에 있어 본 연구는 도덕 판단의 인지 측면을 넘어서는 도덕적 성품에 초점을 맞추었으나, 배려와 개방성 요소는 반영되지 못하는 도덕성 측정상의 한계를 지닌다.

연구 결과 한국 문화에서 도덕성은 절제 요인을 중심으로 공정 요인, 책임 요인, 청렴 요인으로 구성된다는 잠정적 결론이 도출되었다. 절제 요인이 도덕성의 핵을 구성한다는 점은 한국 사회에서 부패행위가 사악한 마음가짐에서 비롯되기보다는 미숙한 마음가짐으로서의 응석의 색조를 띠는 점에 대하여 설명해 준다.

공정 요인이 도덕성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문화가 지닌 강한 집단주의 성향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연고주의는 배타적 이익을 추구하는 매개 역할을 하여 부패로 연결되는 경향성을 지닌다. 그러므로 연고 집단의 기대와 거리를 두는 능력이 한국 사회에서 도덕성을 높게 유지하는 중심 요인이다.

두 번째 연구문제는 부모의 양육행위가 도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부모의 양육행위는 심리적 태도요인과 문화적 가치요인을 통해서 영향관계가 형성된다.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직접적 영향관계를 살펴보면 어머니 양육행위 가운데 어머니의 애정과 어머니의 자율은 도덕성 형성에 대하여 정의 영향을 미치고, 어머니의 통제(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리적 병리성은 도덕성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양육행

위가 도덕성 형성에 미치는 간접적 영향은 주로 심리적 병리성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통제(0.975)는 심리적 병리성 형성을 惡化시킴으로써 도덕성 형성에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머니의 자율(-0.281)과 아버지의 통제(-0.559)는 심리적 병리성을 緩和시킴으로써 간접적으로 도덕성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에 있어서의 차이이다. 보호 척도 구성에 있어서는 어머니와는 달리 아버지의 경우 허용의 하위요인을 지닌다는 점이 차이점이다. 아버지의 통제와 어머니의 통제에 있어서의 차이는 아버지의 통제가 자녀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받아들여지는 반면 어머니의 통제는 자녀 성장에 방해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진다는 점에 있다.

한편 어머니의 양육행위는 심리적 건강성과 관계되고, 아버지의 양육행위는 사회적 가치 내면화와 관계된다. 어머니의 통제는 심리적 병리성을 형성시키는 병리적 요인으로 작용하며, 아버지의 통제는 유교적 가치 가운데 집단주의 형성에 보다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연구문제는 심리적 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자아상은 이에 대한 정의에 따라 스스로를 건강하게 사랑하는 태도를 함축한다. 그러나 적절한 부모의 양육행위에 의해 형성된 스스로에 대한 튼튼한 느낌은 도덕성 형성의 보루가 되는 예측변인으로 작용하기에는 매우 미약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자아상의 형성 과정에는 유교적 가치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내용을 분석하면 그 의미가 자신이 속한 집단으로부터의 인정이라는 타인지향적 인정 욕구의 충족

측면에 치우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구나 자아상은 장기지향성으로 포착되는 내적 주체성과는 쯤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덕성은 절대적 기준에 비추어 스스로 부족하다고 느끼는 마음가짐과 함께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에 대하여 깊이 있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심리적 태도는 도덕성 형성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특히 심리적 병리요인에 속하는 근시안적 이기주의, 유보적 태도 및 충동성은 매우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심리적 건강성은 도덕성 형성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正의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다섯 번째 연구문제는 유교적 가치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이다. 유교적 가치 가운데 장기지향성(신뢰성)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도덕성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 집단주의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기지향성요인은 성취지향의 가치가 개인의 청렴한 생활 자세와 올곧은 성품과 나란히 배열되어 있다. 이는 우리 사회를 역동적으로 이끄는 긍정적 요소이다. 반면 집단주의 요인에서는 요인구성 자체가 정의의 가치를 조화의 가치에 부수되는 요소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러한 배열 구조는 조직과 사회에서 자기정화 역량을 제약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사회의 도덕수준을 고양시키기 위한 전략은 부모의 양육행위와 문화설계의 두 가지 방향에서 제시될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부도덕성은 부모의 부적절한 양육행위로 인해 형성된 이상심리라는 전통적 관점과 일치되는 결과에 도달하였다. 특히 어머니의 통제는 자녀의 건

강한 성품을 함양하는 데에 파괴적으로 작용하며, 심리적 병리성을 강화시킴으로써 도덕성 형성에 역기능적이란 점이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사회가 건강하기 위해서는 가정이 건강하여야 하며, 건강한 가정의 핵심은 어머니의 애정과 함께 아버지의 지도에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우리 사회에서 유교적 가치는 밝은 면과 함께 어두운 측면을 지니고 있다. 밝은 측면은 개인의 장기지향성(신뢰성)을 통해 사회를 건강하고 역동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문화요소가 강력하게 존재한다는 점이다. 반면 어두운 측면은 유교적 가치에 도덕성 요인이 존재하지만, 사회적 영역에서는 도덕성이 집단주의의 하위요인으로 머물게 되는 잠재적 경향성이다. 도덕성이 조화의 가치에 부수되는 것으로 자리매김하는 구성원의 마음가짐은 가치요인의 배열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로 인해 옳고 그름보다는 집단의 이익에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태도가 대두될 수 있다. 도덕성을 고양시키는 문화전략은 장기지향성을 고취시키고, 화합의 가치에 지나치게 치우치는 운영을 삼가야 함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집단 또는 사회 수준에서 도덕성을 고취하기 위해서는 문화설계에 있어 정의의 가치가 화합과 별개의 가치로 인식되도록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집단 내에서의 신뢰를 확대시키는 정신적 기반을 확충하는 전략이 효과적임을 제시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경일 (1991). 사회교육에 있어서의 전통윤리 강화방안.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의 교

- 육과 윤리.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85-229.
- 김기범, 김시엽 (2006). 내부고발자에 대한 지각.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0(4), 47-59.
- 김춘경 (1999). 아동의 병리적 성격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응석의 생활양식과 병리적 성격. *한독교육학연구*, 4, 85-103.
- 김충렬 (1985). 法家에 있어서 사회정의 문제. 김우창 편. *正義와 복지학*. 서울: 문학예술사. 99-129.
- 문용린 (1988). *도덕과 교육론*. 서울: 갑을출판사.
- 배용광 (1983). 동서양규범문화의 변화에 관한 사회학적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51-86.
- 변시민 (1983). 한국인의 행동규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한국사회의 규범문화*.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41-287.
- 송지영 (1992). 한국판 부모-자녀 결합형태검사 (parental bonding instrument): 신뢰도 및 타당성 검증. *신경정신의학*, 31, 979-992.
- 양승두 (1989). 한국인의 법의식: 민주화 사회에의 준법정신-사상과 정책. 서울: 경향문화사.
- 윤태림 (1970). *한국인*. 서울: 현암사. 115-116.
- 윤태림 (1972). 유교문화와 한국인의 심성. 한국 크리스찬아카데미 편. *한국인의 사상구조*. 서울: 삼성출판사. 19-39.
- 이동식 (1980). 전통적 가정윤리와 현대가정의 제문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전통적 가치관과 새 가치관의 정립*. 성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23-141.
- 이승환 (1998). 유가사상의 사회철학적 재조명. 서울: 고려대학교 출판부.
- 이인호 (2003). 文史哲論 <史記伯夷列傳>. *중국어문논총*, 24, 107-123.
- 이정훈 (2002). 한국의 문화적 특징이 조직구성원의 윤리의식에 미치는 영향. *인사관리연구*, 26(2), 183-212.
- 제일기획 (2006). 2005년, 우리의 자화상은? <http://www.cheil.co.kr> 에서 2008, 9, 5에 인출.
- 전경숙 (1993). 좋은 정서 경험이 올바른 인생을 만든다. 서울: 민지사. 217-248.
- 조공호 (1996). 문화유형과 타인이해의 양상의 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15(1), 104-139.
- 차재호, 장영수 (1992). 한국 대학생들의 중요한 가치.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6, 123-136.
- 최재석 (1980). *한국인의 사회적 성격*. 서울: 개문사.
- 최진덕 (1997). "권위에 대한 한국인의 태도: 권위 없는 권위주의"에 대한 논평.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형성과 창조 2-2권위와 문화*, 서울: 조은문화사.
- 하영희 (2001). 청소년의 도덕행동에 관한 관련변인 연구: 권장행동과 금지행동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Adler, A. (1964). *Social interest: A challenge to mankind*, New York: Capricorn Books.
- Ansbacher, H. L. (1992). Alfred Adler's concepts of community feeling and of social interest and the relevance of community feeling for old age. *Individual Psychology*, 48, 403-412.
- Bandura, A. (1982). Self-efficacy mechanism in human agency. *American Psychologist*, 37, 122-147.

- Bellah, R. N., Madson R., Sullivan W., & Swidler A. (1985). *Habits of the heart*.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
- Bond, M. C. (1991). *Beyond the Chinese face*. Hong Kong: Oxford University Press.
- Buechler, S. (2006). Why we need Fromm today: Fromm's Work Ethic. *Fromm Forum.*, 10, 31-36.
- Chinese Culture Connection (1987). Chinese value and the search for culture free dimension of culture. *Journal of Cross-Cultural Psychology*, 18, 143-164.
- Eisenberg, N. (1995). Prosocial development: A multifaced model. In W. M. Kurtines & J. L. Gewirtz. (Eds.) *Moral development: An introduction*. Boston: Allyn & Bacon. 401-429.
- ESEMED/MHEDEA 2000 investigators. (2005). Empirical evidence for an invariant three-factor structure of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in six European countries, *Psychiatry Research*, 135, 237-247.
- Fromm, E (1955). *The sane society*. New York: Reinhart and Winston.
- Fromm, E (1962). *Beyond the chain of illusion*.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Fromm, E. (1992). The influence of social factors in child development. In the *Yearbook of the international Erich Fromm Society*. 3. Münster: LIT-Verlag. 163-165. <http://www.erich-fromm.de/e/에서> 2008, 9, 5 인출.
- Funk, R. (2004). Young people and the "post-modern" character. *Fromm Forum*. 8. 15-20. <http://www.erich-fromm.de/e/에서> 2008, 9, 5 인출.
- Funk, R. (2007). *Erich Fromms kleine Lebensschule*. Freiburg im Breisgau: Herder.
- Gardiner, H. W. (1994). Child development. In L. Adler & U. P. Gielen (Eds.) *Cross-cultural topics in psychology*. Westport: Praeger. 61-72.
- Gibson, J. T., & Chandler L. A. (1988). *Educational psychology: Mastering principles and application*. Boston: Allyn and Bacon.
- Gilligan, C. (1982). *In a different voice: Psychological theory and women's development*.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Hofstede, G. H. (1980). *Culture's consequence*. Beverly Hills, CA: Sage.
- Jenkins, R. L. (1973). *Behavioral disorders of childhood and adolescence*. Springfield: Thomas.
- Kishton, J. M., & Widaman, K. F. (1994). Unidimensional versus domain representative parceling of questionnaire items: An empirical example. *Educational and Psychological Measurement*, 54, 757-765.
- Levy, D. M. (1943). *Maternal overprotection*. NY: Columbia University Press.
- Little, T. D., Cunningham, W. A., Shahar, G., & Widaman, K. F. (2002). To parcel or not to parcel: Exploring the question, weighing the merit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9(2), 151-173.
- Muris, P. (2006). Maladaptive schemas in non-clinical adolescents; Relations to perceived parental rearing behaviours, big five personality factors and psycho-pathological symptoms. *Clinical Psychology and Psychotherapy*, 13, 405-413.
- Parker, G. (1983). *Parental overprotection: A risk*

- factor in psychosocial development*. New York: Grune & Stratton.
- Rest, J. R. (2008). 도덕발달 이론과 연구. [Moral development: Advances in research and theory]. (문용린 · 유경재 · 원현주 · 이지혜 역). 서울: 학지사. (원전은 1986년에 출판).
- Rohner, R. P. (1994). Patterns of parenting: The warmth dimension in cross-cultural perspective. In W. J. Lonner & R. S. Malpass(Eds.). *Readings in psychology and culture*. Needham Heights, MA: Allyn and Bacon.
- Rosenberg, M. (1979). *Society and adolescent self-image: conceiving the self*. NY: Basic Books Inc.
- Rutter, M. (1972). *Maternal deprivation reassessed*. Harmondsworth, England: Penguin.
- Saul, L. J. (1977). *The childhood emotional pattern*,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 Social Development Research Group in University of Washington. (n.d.). <http://depts.washington.edu/sdrg/> 에서 2007, 5, 3 인출.
- Sweder, R. A., Mahapatra, M., & Miller, J. G. (1987). Culture and moral development. In J. Kagan & S. Lamb (Eds.) *The emergence of morality in young childre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83.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Press.
- Turiel, E. (1983). *The development of social knowledge: Morality and convention*. Cambridge,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 Walker, L. J., & Pitts R. C. (1998). Naturalistic conception of moral maturity. *Developmental Psychology*, 34(3), 403-419.
- Yang, K. S. (1981). Social orientation and individual modernity among Chinese students in Taiw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13, 159-170.
- 1 차원고접수 : 2008. 4. 2.
수정원고접수 : 2008. 11. 17.
최종게재결정 : 2008. 11. 24.

The Effect of Parental Behavior within the Confucian context on the Shaping of Moral Integrity

Joung-Hoon Lee

Korea Productivity Center

Present study attempts to explore the effect of parental behavior on the shaping of moral integrity within the Confucian context. For this aim, survey was administered to the classes in 28 schools in the spring 2007 and data were collected from responses made by 1,495 adolescents (age averaged 18.6). Analysis on data shows that the moral integrity for Korean is composed by abstinence, fairness, accountability and transparency among which abstinence is central and salient. Measurements conducted using the Parental Bonding Instrument have shown that child rearing practice have an important impact on the shaping of moral integrity. The LISREL analysis of parental influence in and of itself on the moral integrity, maternal care and maternal autonomy are disclosed to effect positively while maternal control to effect negatively. It is revealed that the mental illness has salient negative effect and functions as a channel of indirect effect of parental behavior on the moral integrity shaping. The maternal control is appeared distinguished for its degrading the moral integrity by aggravating the mental illness. On the contrary, paternal behavior is found to function for guiding the social norm that is represented by the Confucian value. Paternal control is found notable in this respect. It is also found that a long-term orientation and collectivism where Confucian values are concerned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shaping of moral integrity. Long term orientation (trustworthiness) includes the subfactor of achievement that is arrayed with the moral elements and hence is found to effect positively. On the other hand, collectivism includes the moral element in the social arena such as 'resistant against corruption' which is placed subsidiary to the harmony sub-factor and is revealed to limit the capability of self purgation and hence effect negatively on the moral integrity shaping.

Key words : moral integrity, moral development, Parental Bonding Instrument, Chinese Value Survey, configuration of cultural elements